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리도식, 가족 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2006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희 연

심리도식, 가족 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희 연

# 인 준 서

김희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Jeffrey E. Young의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심리도식이 형성되기까지 개인의 어린 시절 지각된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두 변인의 영향을 받은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이 조절을 했을 것으로 보았다.

서울시, 경기도 및 지방에 거주하는 기혼 성인 27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총 21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는 가족 응집성-적응성 척도, Jeffrey E. Young의 심리도식 척도, 스트레스 취약성 척도, 자살생각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T검증,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몇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성별, 주거지, 학력, 월수입에서 심리도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셋째, 어린시절 지각된 가족 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취약성에서는 정서적 안녕감이, 심리도식에서는 단절 및 거절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이 지각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현재 생

활하는 가족응집성-적응성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초기 가족 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구조방정식으로 보았는데, 지각된 초기 가족환경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스트레스 취약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에 취약할수록 심리도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도식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도식이 부정적일수록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로에서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을 조절하는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 II. 이론적 배경

1. 심리도식의 이해..... 4
  - 1) 심리도식의 개념과 정의..... 4
  - 2) 인지모델과 심리도식의 관계..... 5
  - 3) 심리도식의 특징..... 6
  - 4) 심리도식에 대한 선행연구..... 8
2.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9
  - 1) 우리나라 성인 자살의 실태..... 9
  - 2) 자살생각의 개념..... 11
  - 3) 자살생각에 관한 선행 연구..... 13
3. 가족 응집성-적응성..... 12
  - 1) 가정의 심리적 환경..... 16
  - 2)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적응성의 개념..... 17
  - 3) 가족 특성의 세대간 전수..... 22
  - 4)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23
4. 스트레스 취약성..... 28

### III. 연구 목적 및 가설

1. 연구 목적..... 31
2. 연구 가설..... 31

#### IV.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33
2. 연구대상.....	33
3. 측정 도구.....	33
1) 심리도식 질문지.....	34
2) 자살생각 척도.....	34
3) 가족 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	34
4) 스트레스 취약성 검사.....	36
4. 자료분석.....	37

#### IV.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심리도식.....	38
2.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자살생각.....	39
3. 스트레스 취약성과 심리도식의 특정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40
4.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 적응성과 현재 가족환경의 상관관계....	42
5. 지각된 초기 가족환경,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	43
6. 지각된 초기 가족환경, 스트레스 취약성으로 형성된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현재 가족환경의 조절 효과.....	46

#### 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록

## 표 목 차

표 1.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심리도식 .....	39
표 2. 각 척도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41
표 3.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의 상 관관계 .....	42
표 4.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44
표 5.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 -구조모형의 적합도 .....	45
표 6. 가족응집력이 낮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47
표 7. 가족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48
표 8. 가족응집력 조절효과 .....	49
표 9. 낮은 가족적응성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모형의 경로계 수 .....	50

표 10. 높은 가족적응성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모형의 경로 계수	51
표 11. 가족적응성 조절효과	51

## 그림 목차

그림 1.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	44
그림 2. 가족응집력이 낮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47
그림 3. 가족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48
그림 4. 가족적응성이 낮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49
그림 5. 가족적응성이 높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5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동일한 사건이나 환경적 스트레스에도 개인에 따라 반응하는 양상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적·내적 자극에 반응하는 각기 다른 인지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지과정은 일시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축적되고 답습되어 온 쉽게 변하지 않는 사고의 틀이다. 우리는 자기가 형성한 사고의 틀로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반응한다. 사고의 틀이 긍정적일수록 자신·타인·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반응을 하게 되고, 부정적이라면 그에 맞는 지각과 반응을 하게 된다. 즉,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갖게 된 것은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기질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갖는 심리도식 즉, 초기 부적응 도식을 파악하고, 이런 도식이 낳은 결과를 알아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심리도식은 한 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닌,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형성되며, 특히 그중에서도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 일생동안 반복되는 도식이다(Young, 1990, 1999). 사람은 살면서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문화적, 사회적 지원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들 모두가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가족의 지원만큼 사람이 성장하는 시기 중 결정적 시기, 길게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주는 집단은 없다고 본다. Erikson(1972)의 연구는 가정이 한 개인의 정의적 특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며, 가정생활의 각종 경험과 학습은 성장기 자녀의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누구에게나 가정은 출생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없이 관계를 맺게 되는 일차적 사회로서, 개인이 최초

로 모든 경험을 익히는 사회생활의 장이며 행동의 기초를 확립하는 곳이다. 가족의 지원은 개인육구충족에 필요한 감정과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육체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House, 1981). 따라서 인생 초기에 지각된 가족응집성-적응성이 개인의 심리도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살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며, 시대에 따라서 이해 가능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되기도 하였다(박상철, 조용범, 1998; 최승자 역, 1982).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자살을 정신장애(King, Pfeffer, Gammon, & Cohen, 1992; Shaffer, Gould, Fisher, Trautman, Moreau, Kleimnan, & Flory, 1996), 가족체계 내의 갈등(Aldridge, 1998; Firestone, 1997), 및 장기적인 스트레스(Jacobs, 1971, White, 1989에서 재인용)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제기되면서 자살의 치료와 예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의료계와 언론은 자살의 원인을 우울이라고 돌리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울증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살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의 10-15%만이 자살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우울증 환자들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은데 비해 실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성비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다. 이는 자살의 원인을 단순히 우울로 돌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청소년층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살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일 뿐만 아니라, 성인 30-39세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의 1위에, 성인 40-49세에서는 3위에, 성인 50-59세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주요원인으로 매우 높은 사인이다(통계청, 2004).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이 연구된 우울이나 신체·심리적 질환이 아닌 인지체계를 바탕으로한 심리도식을 토대로 기혼 성인이 갖는 자살생각에 대하여 연구 할 것이다.

정서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주는 인생사건(life event)의 치명적인 영향을 완충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t roebe& St roebe, 1996). Cutrona(1986)는 정서적인 지지가 다른 집단보다는 가족을 통해서 많이 제공된다고 하였으며, Krouse & Liang(1990)은 친구로부터의 지지보다는 가족의 지지가 유의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정현, 1996).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앞서 언급한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의 상관을 보는데 있어 현재 지각된 가족 응집성-적응성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가족응집성-적응성에 대한 지각과 내부적 요인으로서의 개인의 스트레스 취약성을 토대로 형성된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과정을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조절변인으로서 현재 지각하고 있는 가족응집성-적응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사이에 조절효과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심리도식의 이해

#### 1) 심리도식의 개념과 정의

‘도식(Schema)’라는 용어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조, 뼈대, 윤곽을 뜻한다. 특히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데, 주로 인지발달 분야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한다. 인지발달에서 말하는 도식이란 현실이나 경험에 부여된 어떤 패턴으로서, 개인이 현실과 경험을 설명하는 것을 돕고 지각을 매개하며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도식은 어떤 사건의 독특한 측면을 추상적으로 표상한 것으로, 가장 뚜렷해 보이는 요소들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다. 인지심리학에서 도식은 정보를 해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추상적인 인지적 계획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도식 중의 대다수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교해지면서 생애 후기의 경험들에 중첩되며, 심지어 더 이상 기존의 도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인지적 일관성’에 대한 욕구라고 일컬어지는데,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정된 시각이 실제로는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넓은 의미의 정의로 보면, 심리도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적응적일 수도 혹은 부적응적일 수도 있고, 아동기에 형성될 수도 있고 생애 후반에 형성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도식과 초기 부적응 도식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Jeffrey E. Young은 심리도식이란 광범위하고 만연된 주제나 패턴을 갖고 있으며, 기억·감정·인지·신체감각으로 구성되고,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또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주로 발달하며, 생애 전반에 걸쳐 정교화 되고, 유의미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역기능적인 도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든 심리도식이 아동기 외상이나 학대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심리도식은 파괴적이며, 대부분의 심리도식이 생기는 원인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동안 규칙적으로 반복된 유해한 경험이다. 이러한 유해한 경험의 영향은 축적되며, 이것들이 합쳐져서 여러 문제를 지닌 심리도식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도식 이론에 근거한 심리도식치료(Schema therapy)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의 개념과 치료 방법을 의미있게 확장시킨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Jeffrey E. young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다.(Young, 1990, 1999). 심리도식치료는 인지행동치료, 애착이론, 게슈탈트 치료, 대상관계 이론, 구성주의 및 정신분석 치료의 요소들을 조합하고 개발된 여러 기법들을 통합하여 인지행동치료를 확장시킨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심리도식치료에서는 심리적 문제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탐색할 것을 강조하고, 체험적 기법, 치료자-내담자 관계, 부적응적 대처방식 등을 더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인지행동치료를 확장시켰다.

## 2) 인지모델과 심리도식의 관계

사람의 행동이 표현되는 이면에는 그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사건과 그에 따른 생각과 감정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각자의 도식

(Schema)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인지주의적 모형의 대표적인 치료이론은 Beck의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와 Ellis의 합리적 정서치료(Rational emotive therapy)가 있다(안창일, 2002). 인지모델은(Cognitive model)은 모든 심리적인 장애에서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사고가 공통적이며, 이러한 역기능적인 사고는 환자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수정이 기분과 행동의 호전을 가져오며, 지속적인 호전을 위해서는 환자에게 내재하는 역기능적인 믿음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사고, 믿음 중 가장 근원적이고 깊은 수준의 믿음을 핵심믿음(Core belief)라고 보았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경직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있다. 반면 자동적 사고 즉, 그 사람의 마음속을 스쳐가는 실제적인 단어나 영상 등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생기는 것이고, 인지의 가장 표면적인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핵심믿음과 자동적 사고 사이에는 태도(attitude)나 규칙(rule) 그리고 가정(assumption)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믿음이 있다.

즉,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한 사람의 내재된 믿음은 그 사람의 지각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상황 특정한(situation-specific)자동적 사고를 통하여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적 사고들은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행동과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전반적인 인지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인지모델은 사고만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 심리도식모델은 개인이 갖는 발달력, 그에 따라 형성된 도식, 상태, 그리고 대처방식을 포함하는 등의 인지를 갖게 된 과정과 결과적 반응을 중시하는 모델로 간주되어진다.

### 3) 심리도식의 특징

### ① 핵심적 정서욕구

기본적으로 아동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핵심적 정서욕구(core emotional need)로 인해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지닌 다섯 가지의 핵심적 정서욕구를 가정해 보았다(권석만, 2005).

- 타인과의 안정 애착(안전감, 안정감, 돌봄, 수용을 포함)
- 자율성, 유능감, 정체감
- 타당한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자유
- 자발성과 유희
- 현실적 한계 및 자기-통제

### ② 생애 초기의 경험들

심리도식의 형성을 촉진하는 생애초기의 경험들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는 경우이다. 아동이 만족스러운 것을 너무 적게 경험할 때는 초기 환경의 결핍으로 인해 정서적 결핍 도식 혹은 유기 도식을 갖게 된다. 그 아이의 환경에는 안정감, 이해, 사랑과 같은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 심리도식을 야기하는 두 번째 유형의 생애 초기 경험은 외상 또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아동은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받으며, 불신/학대, 결합/수치심 혹은 위협에 대한 취약성 등의 심리도식이 발달된다. 세 번째 유형은 아동이 만족스러운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경우이다. 즉,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정도라면 좋았을 것을 부모가 너무 많이 제공한 경우이다. 심리도식을 만들어내는 네 번째 유형의 생애 초기경험은 중요한 타인을 선택적으로 내면화 혹은 동일시하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한 타인(부모)의 모든 것을 동일시하거나 내면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중요

한 타인의 어떠한 측면들만을 선택적으로 동일시하거나 내면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동일시나 내면화의 일부가 심리도식이 되며, 어떤 부분은 대처방식 혹은 양식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타인의 특성을 어떤 사람이 동일시 혹은 내면화 하느냐 마느냐를 부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질 때문이라고 본다.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내적 기질은 아동기의 고통스런 사건들과 상호 작용하여 심리도식을 만들어 낸다.

#### 4) 심리도식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에 심리도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편인데, 조성호(2001)가 초기 부적응 도식에 따른 방어유형과 대인관계 양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방어유형에 대한 결과로는, 타인에게 ‘배려/희생적’이 되 ‘예속/굴종’되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정도가 높고(‘내성취약’)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자기우월’) 사람들은 적응적 방어유형을, 반면에 타인과 ‘고립/단절’되거나 ‘예속/굴종’되어 있고 ‘충동/분노’가 많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취약한 사람들은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유형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고 타인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배려/희생적이지도 않으며 타인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냉담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고 타인에게 배려/희생적이며 스스로를 결함이 없고 우월한 존재로 지각하며 내적인 충동/분노가 적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온화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 2001).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전반적인 정신병리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적대감등의 주요 정서 증상들과 편집성, 경계선 등의 주요 장애적 성격

특질들에 대해서 기존의 이론적 입장과 임상적 경험에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련성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조성호, 2002).

## 2.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 1) 우리나라 성인 자살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OECD Health Data, 2005), 2004년에는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이 암(1위), 뇌혈관질환(2위), 심장질환(3위), 자살(4위), 당뇨병(5위)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망원인들 중에 다른 질병들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개인이 조작 가능한 ‘자살’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표 2> 연령계층별 사인순위

(단위 : 인구 10만명당)

연령	1위	2위	3위	4위	5위
계	암 133.5	뇌혈관질환 70.3	심장질환 36.9	자살 25.2	당뇨병 24.3
0	출생전후기 질환 259.6	선천기형 99.1	영아급사 증후군 15.2	암 5.0	심장질환 4.8
1-9	운수사고 5.1	암 3.3	익수사고 2.3	선천기형 2.0	추락사고 1.0
10-19	운수사고 5.3	<b>자살</b> <b>3.7</b>	암 3.7	익수사고 1.7	심장질환 0.6
20-29	<b>자살</b> <b>13.8</b>	운수사고 11.1	암 6.0	심장질환 2.3	익수사고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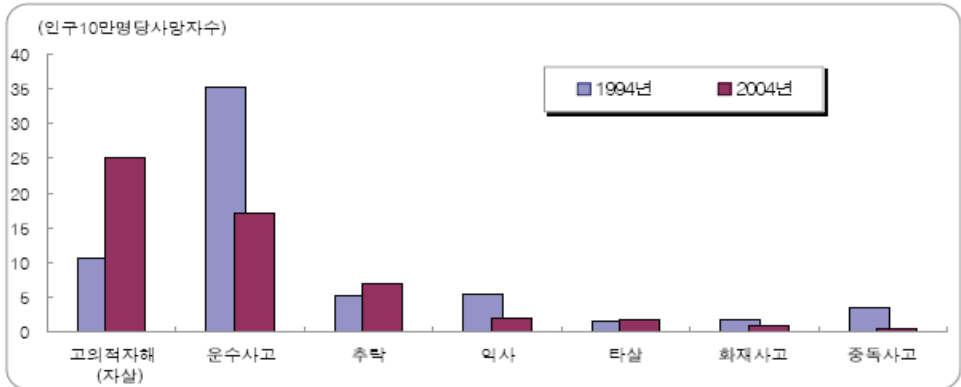
30-39	<b>자살</b> 20.6	암 20.3	운수사고 11.3	간질환 6.2	심장질환 5.5
40-49	암 72.2	간질환 30.7	<b>자살</b> 29.5	뇌혈관질환 18.6	운수사고 18.1
50-59	암 207.9	뇌혈관질환 52.2	간질환 50.9	<b>자살</b> 38.1	심장질환 37.7
60-69	암 514.7	뇌혈관질환 188.7	심장질환 94.7	당뇨병 88.4	간질환 58.3
70+	암 1144.6	뇌혈관질환 947.2	심장질환 441.6	만성하기도 질환 278.5	당뇨병 272.0

또한, 아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의 사망원인 순위를 검토해 보았을 때, 암 사망률이 가장 증가하였고, 운수사고 사망률이 가장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10대(大) 사인 중 자살의 순위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04)

<표 3> 사인순위 및 사망률 변화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1994년		사망원인명	2004년		증감	
사망률	순위		순위	사망률	순위	사망률
530.2	-	계	-	506.9	-	-23.3
112.7	1	암(악성신생물)	1	133.5	-	20.8
84.4	2	뇌혈관질환	2	70.3	-	-14.1
43.6	3	심장질환	3	36.9	-	-6.7
<b>10.5</b>	<b>9</b>	<b>자살</b>	<b>4</b>	<b>25.2</b>	<b>3</b>	<b>14.7</b>
17.0	7	당뇨병	5	24.3	2	7.3
29.2	5	간질환	6	19.1	-1	-10.1
15.7	8	만성하기도질환	7	17.3	1	1.6
35.3	4	운수사고	8	17.2	-4	-18.1
25.8	6	고혈압성질환	9	10.4	-3	-15.4
4.6	17	폐렴	10	7.2	7	2.6



## 2) 자살생각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자살(suicide), 자살적인(suicidal)이라는 말들은 우리 스스로 죽음을 의도하는 자기 선택의 행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을 생각하게 하는 행동이나 경험들이 있다고 하여도, 대다수의 경우 긍정적인 동기보다는 자기 파괴라는 부정적인 동기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자살은 자신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망·절망·분노와 같은 복잡한 정서의 극단적인 표현이거나 자신의 극단적인 정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Kidnhost & Diekstra, 1995)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미수 또는 자살기도, 자살행동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으로, 잘못된 자기 파괴적인 망상(preoccupation)을 갖고 죽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행동, 사고, 정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Goldney, Winefield, & Tiggemann, 1989). 둘째, 자살미수(attempted suicide)는 때때로 자살기도로 언급되기도 한다. 중요한 자살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조작적이고 다양한 행동을 하지만 자살에는 실패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자살(suicide)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파괴 행동의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Kienhorst, Wilde, & Diekstra, 1995).

세계보건기구(WHO, 1968)에서는 자살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살행위란 ‘어느 정도의 자살의도를 가지고 그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한 상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향화된 살의 또는 공격성에 의한 극도의 자해현상’을 말한다. 뒤르켐(Emile Durkheim)은 자살은 피해자 자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죽음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이지연, 2004재인용).

White(1989)는 자살생각을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로 정의하였다. 자살행동은 자살생각으로부터 자살기도에 이르는 연속범위로 개념화 될 수 있으며(Dubow, kausch, & Blum, 1989), 자살생각을 자살기도의 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살생각이란 일반적으로 자살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위협(눈에 보이는 자살관련 행동이나 언어로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을 이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자살 행동을 자살생각·기도·위협·시도·완성을 포함한 가능성의 연속체로 개념화하는 연구도 있는데(Bech, Kovacs & Weissman, 1979), 이 연속체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자살위협과 신호를 유도하는 자살기도를 이끌며 자살행위에 앞선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살행위는 사고와 행동의 연속체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자살행동을 개념화한 것은 자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정의를 살펴볼 때, 자살생각이 곧 자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

이라는 결과나 자살기도라는 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의 인지적 특성을 주장하는 Beck (1976)에 의하면 자살생각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을 기도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자살생각을 감소 시킴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Simons과 Murphy (1985)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에 대한 생각이라도 후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거나 바로 자살기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살을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살 기도자들은 자살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Lest et, 1989). 자살생각은 자살기도, 자살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살 생각은 논리적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에 앞서므로 자살생각의 정도는 자살시도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살생각이나 자살충동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후의 자살시도의 한가지 예언지표가 될 수 있으며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의함으로써 자살행위의 유발요인을 찾을 수 있다(Beck, 1979; Simons & Murphy, 1985).

### 3) 자살생각에 관한 선행연구

여러 연구에서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기도와 관련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Calson & Cantwell, 1982; Crumley, 1979). 또한, 자살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우울이라는 연구보고 (Rainer, 1984; Weissman, 1974)와, 자살충동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들이 우울증적 증상들이라는 연구들도 나왔다(Kandell, Raveis, & Davies, 1991; Maris, 1981; Sherer, 1985). 대다수의 자살하려는 사람은 우울하며,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3~ 4%는 실제로 자살을 하게 된다

(Black, W inokur , & Nasrallah, 1987). 홍영수 ·이정균(1980)은 자살의 동기는 주목받기 위함, 열등감, 체면유지, 정신질환의 순이고, 정신과적 진단명으로는 우울증이 가장 많고 (53%), 성격장애, 일과성 환경장애, 정신분열증의 순이라고 하였다. 일시적인 증상으로서의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약 30% 정도가 자살했다는 Klerman (1987)의 조사 연구 결과는 단일요인으로서는 우울증이 자살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risk factor)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우울을 많이 다뤘으며 자살을 예측하는 가장 강한 예측인자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울과 관련된 심리도식이 내재한다는 전제하에 우울을 통제하지 않고 연구를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정체감이(ego identity)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자아정체감이 낮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건전한 자기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준다. 또한 자아정체감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확대와 무가치감으로 이어져 자살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한다(박성칠, 조용범, 1998). 또 다른 연구에서도 건강한 방식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청소년들은 자아상(self image), 성에 대한 태도, 장기적인 목표, 직업선택 등을 포함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불확실감을 느끼게 되고 만성적인 공허감이나 권태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때때로 죄책감과 책임감이 결여된 듯이 즉각적인 쾌락과 욕구충족을 무모하게 추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불안, 우울감을 경험하고, 도박, 알코올 남용, 무분별한 성적인 방종 행위 등을 보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신민섭, 1990). 이처럼 자아정체감은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잘 되고 있다(김성춘, 2002).

많은 연구자들은 자살생각을 자살기도의 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있다고 가정하였고 일부 경험적 연구들은 심각한 자살생각을 경험한 대상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자살기도를 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arlson과 Canntewell(1982)은 일반인들의 자살생각을 조사하고 후속연구로서 이들의 자살기도율을 조사했는데 자살생각이 심각했던 사람들의 43%와 경미했던 사람들의 34%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성립, 1990재인용).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했던 소년의 57%, 소녀의 69%가 자살생각을 가졌음을 밝혔으며, 심각한 정도의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이 낮은 수준의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보다 자살시도를 더 하기 쉬운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Bettters & Walker, 1986). 또한 Rudd(1990)는 737명의 대학생을 조사한 결과, 43%가 지난해에 자살생각을 가졌는데, 그중 15%가 자살시도를 계획하였고, 6%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밝혔다.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고등학생, 대학생)들의 35%~55%가 자살에 관한 생각을 가졌다(Bolger, 1989 ; Bonner & Rich, 1987)고 기록하고 있으며, 유사하게 자살 시도자의 3/4 이상이 자살생각/사고를 가졌음을 지적하였다(Hodges & Siegel, 1985).

청소년에 대한 연구로, Kumar와 Steer(1995)는 청소년 정신과 환자 121명의 자살생각을 조사하였는데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배경과 임상적 특징 12가지, 즉 성, 나이, 인종, 현재와 과거의 자살 시도, 약물남용, 신체적 학대의 경험, 성적 학대의 경험, 기분장애 진단 등과 불안, 우울, 절망을 회귀분석한 결과 오직 우울과 절망만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Harter와 Marold(1993)은 우울, 절망, 부족한 사회적 지지,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우울증이 있는 임상 청소년 뿐 아니라 정상 청소년 모두의 자살생각에 기여한다고 지적하였다.

Deman, Leduc, Labreche-Gauthier(1993)는 캐나다와 프랑스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조사결과 우울, 부정적 스트레스, 약물 및 알콜 남용,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만족, 학교 결석등이 자살생각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홍나미, 1998).

### 3. 가족 응집성-적응성

#### 1) 가정의 심리적 환경

인간은 출생하자마자 소속되는 최초의 사회집단이 가정이며 가족생활을 통하여 가족구성원 개개인은 자신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가족 상호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이 갖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가족 전체의 안녕을 도모한다. (이광욱, 최영희, 1990)

가족은 기본요구를 충족하고 평형을 달성할 목적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 조직망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체제로 간주된다.

Miller는 가족을 기능하는 체제라 하였고(Miller, J. R. & Janosik, E. H, 1980) Friedman은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체제로 보았다(Friedman, 1986). Hamberg는 가족은 상호작용을 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그 가족구성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위기에 적응하도록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사회적 지지체제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지지체제로서의 가족은 스트레스 혹은 위기상황에서 가족성원이 적응에 실패하게 하는 주요원인인 불안, 우울,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이며 일차적인 사회적 지지체제이다(Hamberg, P.A, 1967). Thoits는 지지

의 일차 그룹인 가족에 의해 제공된 정서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 생리적 심리적 결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Thoits, P. A, 1982).

Dean등은 사회적 지지는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변화와 위기의 연속인 인간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생활 변화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평형을 이루게 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덜 위축되고 신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였다(Dean, A. & Lin, N, 1977).

House는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대체로 상호작용을 통해서인데, 낮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상호 작용이라기 보다는 대체로 안정된 사회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지의 근원으로는 부모, 배우자, 친구들, 직장동료, 전문가 등이며, 이와 같은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지지의 내용이나 질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다(House, J. S, 1981; 장숙희, 1991재인용).

인간이 속하는 가족환경에는 정서적 응집성이나 적응성외에도 경제적, 교육적, 물리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교육적 요인인 실제적 환경이 아닌 환경에 대한 지각과 정서적 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적 환경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때문에 가족기능을 진단하는 모델들 중 가장 포괄적인 모델인 복합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가족응집성-적응성의 정도에 따른 심리도식의 형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 2)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적응성의 개념

가족체계이론 관점에서 가족의 역동적 특성을 설명하고 건강한 가족인지 역기능적 가족인지에 대한 가족기능을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Kantor와 Lehr(1976)는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의 영역에 대한 의미와 조직화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Broderick와 Smith(1979)는 경계와 변형 규칙이 가족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Barnhill(1979)은 가족의 정신건강과 정신병리현상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경직성과 융통성, 안정성과 혼란이 가족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준거라고 하였다. Minuchin(1974)는 가족 내의 경계의 명확성이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이라고 하였다. Olson 등(1979, 1983)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박현진, 1999).

이러한 가족기능을 진단하는 모델들 중 가장 포괄적인 모델이 Olson 등(1979)의 복합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이다. 이 모델은 균형이란 개념으로 다루어지는데, 체계는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성을 이루고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즉, 극단적인 가족보다 균형을 이룬 가족들이 보다 적절하게 기능하며, 적절한 수준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가진 가족만이 가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는 것이다.

복합순환모델은 응집성정도에 따라 유리, 분리, 연결, 속박 4수준으로 분류되며, 적응성정도에 따라 경직, 구조화, 융통, 혼돈 4수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각 4가지 범주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조합하면 16가지 가족 체계유형이 나오는데,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차원이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을 ‘균형잡힌 가족’,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중 한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룬 가족을 ‘중간수준의 가족’,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두 차원 모두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족을 ‘극단적 가족’이라고 한다(Olson et al, 1983; Olson, 1993). 또한 복합순환모델에 의하면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가족의 기능과는 곡선적 관계를 가진다. 즉 적절한 수준의

응집성과 적응성만이 가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응집성 및 적응성이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는 가족의 기능이 역기능적이라고 본다.

### (1) 가족응집성의 개념

가족응집성이란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 것으로(Olson, Russell & Sprenkle, 1983),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연결과 분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 한편 정원식(1965)에 따르면 가족의 응결력이란 가족구성원이 가정을 생활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갖는 정도를 말하며 응결력과 소외의 양극을 연결하는 연속선으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가족응집성은 외적으로는 가족경계선의 침투성을, 내적으로는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독립과 결합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개인의 사적 공간이나 사적 친구의 허용정도, 의사결정 방식 등이 지표가 된다. 응집성의 수준은 정서적 유대감이 거의 없는 유리된 가족, 적당히 낮게 분리된 가족, 적당히 높게 연결된 가족, 정서적 유대감이 너무 강해 속박된 가족의 네 수준으로 구분한다.

Olson 등(1983)에 의하면 가족응집성 수준이 적당할 때만이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한다. 즉 응집성이 연결 수준에 있는 가족은 독립과 연결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가족 기능이 원활하고 개인의 발전도 최적의 수준을 이루게 되며,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보다 잘 융통성 있게 대처하게 된다(Galvin & Bronmel, 1986; Olson et al., 1983). 반면에 응집성 수준이 매우 낮은 유리된 가족은 지나친 개인성으로 인해 애착과 가족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비협조적이므로, 대인관계 능력이 약화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인해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다. 또한 응집성 수준이 너무 높은 속박된 가족은 과도한 동일시로

인한 가족원의 개인성 무시와 사적 요소의 차단, 지나친 소속감과 충성심을 요구하므로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다.

가족의 응집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이 있다(Olson, 1985).

첫째, 정서적 결속감은 가족 구성원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감과 가족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도움과 의논은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일을 다른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의 경계는 가족 외부 환경과 가족 내부 하위 체계들간의 경계가 적절히 개방되거나 명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여가시간 및 친구의 공유는 가족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의 친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섯째, 활동의 공유와 행사 참여는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 있으면 꼭 참석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김인숙, 2004재인용)

## (2) 가족적응성의 개념

가족적응성은 가족이 가족의 규칙, 역할 및 전략을 내적, 외적인 필요와 목표에 반응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Olson, Sprenkle, Russell(1979, 1983)등은 이러한 가족의 변화와 유연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족적응성을 제시하고 가족의 적응성을 ‘상황적, 발달적 압력에 반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체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적응적인 가족체계는 안정과 변화의 균형을 요구한다고 하였다(최희량, 1998). 그러나 1992년 이후 그들은 적응성을 ‘지도력, 역할관계 및 관계규칙에서의 변

화의 양'으로 재정의 하였다. 그리고 가족적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 체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안정과 변화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체계의 힘을 나타내는 자기 주장성, 통제나 훈육방식, 협상방식, 역할관계 및 가족관계 등이 그 지표가 된다. 가족적응성은 변화정도에 따라 적응력이 거의 없는 경직된 가족, 적당히 낮은 구조적인 가족, 적당히 높은 융통적인 가족, 적응력이 너무 낮은 혼돈된 가족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다. Olson 등(1983)에 의하면 가족의 적응성 수준이 적당할 때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응성 수준이 적절한, 융통적인 가족은 안정지향과정과 변화지향과정 사이의 균형을 통해 유연하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가족이다. 반면에 극심한 변화를 지향하여 정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혼돈된 가족은 스트레스 때문에 공통의 의미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다. 또한 안정만을 지향하는 경직된 가족은 변화와 성장을 억제하므로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적응성을 진단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위영역들은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과 규칙의 네가지이다(Olson, 1985).

첫째, 지도력은 가족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만이 담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주도 가능성도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통제는 가족 내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셋째, 훈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과하는 훈육의 유형과 문제해결에 대해 자녀들이 부모와 협상할 수 있는 정도이다.

넷째, 역할과 규칙은 문제 해결 방식이 다양하고, 역할의 확립과 분담이 명확하며, 때로는 역할의 자연스런 변화나 가족 규칙의 변화를 인정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네가지 하위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적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순서로 혼돈, 융통, 구조, 경직의 네가지로 구분된다.

(김인숙, 2004 재인용)

### 3) 가족 특성의 세대간 전수

한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개인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가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이 경험한 초기 가족의 영향은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첫째, 세대 과정이 영속적이며, 둘째, 세대 과정은 변화되기 어렵고, 셋째, 한 세대의 가족 구성원들은 이전 세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Burr, Day & Bahr, 1993).

Burr등(1993)은 가족의 틀 안에서 세대 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고 보았다. 가족구성원들이 행동하고, 느끼고, 관계를 맺는 방식 및 구성원들 상호간의 친근감이나 거리감에 대처하는 양식은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로 이어진다.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건강한 상호작용방식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구속하지 않는 결속력, 강압적이지 않은 친밀감 및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병리적인 상호작용방식은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로 인한 성인 자녀의 결혼파괴, 아동학대 및 정신질환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Anderson과 Sabatelli(1992)는 핵가족체계 내 구성원들 간에 연결성과 분리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거리규제방식인 가족분화의 개념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예언하였고, 부모의 가족분화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남순현, 2001재인용).

이렇듯 개인이 경험하고 지각한 초기 가족의 영향 즉, 응집성과 적응

력은 그 개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주어 세대 간의 전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 4)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1) 세대간 전수에 대한 선행연구

인간이 성장하는데 있어 어린 시절 가족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 지지적인 가정과 부모양육의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친사회적인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asten, 2001), 아내를 학대하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들보다 그들의 부모에게서 폭력을 관찰한 사람이 많다는 연구도 있다(Hotaling & Sugaman, 1986; Rosenbaum & O'Leary, 1981;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Ulbrich & Huber, 1981) 또한 Erikson의 이론에 근거하면 초기 애착형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성인 초기의 가까운 사람(배우자, 애인)과의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은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초기 가족의 상호작용이 세대 간에 전수된다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결혼관계의 질, 아동 학대 및 정신건강과 정신질환과 같이 병리적인 측면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건강한 세대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Bowen(1978)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과 같은 병리적인 측면은 이전 세대들이 현 세대로 전수한 정서적 융합의 결과로 보았다(Glenn & Kramer, 1987; Milner & Winberly, 1980; Kerr & Bowen, 1988). 이전 세대의 인간관계유형이 다음세대의 가족기능의 암시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Bowen은

가족 유형의 다세대 전달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가족 구조의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그 개인의 기능이나 인간관계의 유형, 다음세대에서 형성될 가족유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행동 형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델에 근거해 3세대에 걸친 가족분화 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모든 조부모의 분화와 부모의 분화, 기혼자녀와 배우자의 분화체계에서 가족분화수준이 세대간 전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남순현, 2001)

## (2) 가족응집성, 적응성에 대한 선행연구

복합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의 중심개념인 응집성 및 적응성은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을 구분짓는 중추적 개념이 되며, 정상가족과 임상가족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되었다(박초아, 1986;배은경, 1986;유순덕, 1987;Olson et al, 1979, a.b;Portner, 1981;Bell, 1982;Filsinger,1983). 김인숙(2004)의 연구에서 가족 응집성- 적응성과 청소년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우울은 낮아 유의했지만, 가족의 적응성과 청소년 우울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순환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박현진, 1999재인용). 첫째, 비행 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 정신질환 청소년 등 주로 문제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Garbarino등(1984)은 가족과 청소년의 문제에서 가족기능이 극단적인 수준일 때 가족구성원의 건전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개인 병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약물남용 청소년을 가진 가족에 대한 연구(Friedman, Utada & Morrissey, 1987)에서는 극단 가족과 가족 역기능

이 상호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임용우(1984)는 가족체계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Olson의 가족체계 모델에 근거한 가족체계의 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윤희(1989)는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응집성 및 적응성 대처수준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가족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응집성 수준이 낮으며, 가족의 응집과 적응이 낮을 때 청소년 자녀의 비행정도가 높았다. 민하영(1991)의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낮을 때 비행의 발생빈도 및 비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제가족과 정상가족을 비교한 연구들이다. Russell(1979)은 여자 청소년을 둔 가족들을 연구한 결과, '위기'에 직면하여 잘 기능하는 가족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이 적절한 반면에 잘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이 극히 높거나 낮았다. Portner(1981)는 가족치료 중인 청소년가족과 정상가족과 비교에서, 정상가족의 대부분은 균형을 이룬 가족에 속하는 반면, 가족치료 중인 가족은 극단 가족에 속하며 특히 응집성은 유리, 적응성은 혼돈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Bell(1982)은 가출 청소년 가족을 정상적 가족과 비교하였는데, 정상가족의 어머니와 청소년이 적응성과 응집성 차원에서 보다 균형적인 반면에 가출청소년이 있는 가족은 중간 수준의 가족과 극단가족이었다. 특히 가출청소년 가족은 응집성 차원에서 유리수준에, 적응성 차원에서 혼돈수준에 속해있었다. Clark(1984)은 신경증, 정신분열증을 가진 가족, 과거에 가족치료 경험이 있는 가족과 치료경험이 없는 정상가족을 비교하였다. 치료 경험이 없는 정상가족이 가장 균형을 이루었고, 다음으로 치료 경험이 있는 가족, 정신분열증 가족, 신경증 가족의 순이었다. Rodick 등(1986)은 FACES를 사용하여 소년범이 있는 가족과 범죄경력이나 정

신병의 병력이 없는 가족을 연구하였는데, 소년범이 없는 가족의 대부분은 응집성과 적응성에서 균형수준을 나타낸 반면에 소년범이 있는 대부분의 가족은 응집성 수준이 속박에, 적응성 수준이 혼돈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순덕은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지각을 통해 가족체계유형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복합순환모델이 정상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도수경(1990)은 가출경험이 있는 소녀와 비가출 경험 소녀간의 가족관계 연구에서 가출소녀의 가족이 중간수준이나 극단가족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가출 소녀의 가족은 균형을 이룬 가족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일반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Bames와 Olson(1985)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격형성(고승자, 1985)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홍성애, 1988)에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영미(1990)는 가족응집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에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체계유형의 자녀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상분(1992)은 정상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복합순환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문화에 맞는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3) 가족환경이 정신건강과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설계 모형은 성인의 초기가족응집성-적응성이 심리도식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정신건강과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를 18세 이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정에서의 폭력이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자녀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는 종종 우울 정서로 나타난다(장희숙, 2002). 가정 폭력을 겪으면서 청소년들은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자신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나아가 우울증상을 보이게 된다(Lynch & Cicchetti, 1998). 가정의 폭력이 그 가정의 자녀인 청소년의 우울증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는 여럿 찾아 볼 수 있다. Sternberg(1993)는 부모 간의 폭력을 보거나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우울증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밝혀냈고 국내 연구에서도 가정폭력과 우울증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검증이 되었다(조미숙, 1999)

또한 부모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의 자녀들보다 병리적인 발달의 위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Downey & Coyne, 1990), 특히 그들의 자녀가 우울을 보일 확률이 우울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보다 2배에서 6배(Lieb, et al., 2002),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s & Davies, 1994).

또한 자녀의 적응에는 부부간의 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부부 관계 만족도의 자녀의 발달에 대한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의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Howes & Markman, 1989; 어유경, 2005재인용).

Wilson(1979)은 가족은 전체로서 기능하는 하나의 체제로, 삶을 영위하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가족과 가족관계, 가족구조 및 기능, 외부체계와의 상호관계와 정신질환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Allen 과 Hery(1987)는 가정을 단위로 청소년의 자살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갈등과 일치한다는 연구와 함께 부모의 친밀

감과 지지의 부족이 우울증과 자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황경순, 1998). 자살청소년과 비자살청소년에 대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자살청소년은 부모의 훈육이나 거부된 감정이 부당하게 지각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Jacobs, 1971). 이와 같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청소년들의 가정을 보면 정상집단의 청소년들보다 불안정하고 역기능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스트레스 취약성

스트레스 취약성은 외적인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다.

취약성 모형(Vulnerability Model)은 스트레스가 우울 등의 정신 건강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상황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Dohrenwend & Dohrenwend, 1981; Rabkin, 1982).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의 공격으로부터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뜻한다. 스트레스 자극은 누구에게나 같은 반응이나 대처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가 있다. 즉, 스트레스 자극에 강한 면을 보이는가 하면 취약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Sarason, 1960, 1975).

스트레스의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차이로 개성의 차이를 들고 있다. 또한 외적 요인으로서 직장에서의 문제, 일상생활의 사건, 신체와 정신건강 수준이 영향을 준다. 즉, 개인의 불안한 심리적 건강상태와 신체적 징후와 같은 취약성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Billings & Moos, 1984). 또한 상황적 요인, 개인적 특성, 문화적

차이와 선호, 인지평가와 같은 수많은 요인은 대응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개념화 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Aldwin & Revenson, 1987).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증진할 때 증가하게 된다(장현갑 외, 1996).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양소가 갖춰진 음식물 섭취, 금주와 금연, 적절한 운동, 정서적 지지, 감정표현 능력, 애정을 주고받을 기회, 긴장의 이완과 오락,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간의 균형, 자기이해와 자기 수용 능력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의 전망도 가능하게 한다.

Bonner와 Rich(1987)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트레스 취약성모형을 제안하였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자살행위는 고립된 사건이라기보다 복잡한 역동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살과정은 수동적인 자살생각으로 시작하여 실제 자살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며, 마침내 실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실제 자살시도와 완성에 이르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위치는 다양한 신체 심리사회적 과정(일상 스트레스, 알콜 남용, 가족 또는 동료문제, 우울 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일상 스트레스와 어떤 심리사회적 변수 - 인지적 왜곡, 우울, 절망, 외로움 등 - 와의 상호작용이 자살과정으로 이끌며 그 활동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홍나미, 1997).

Folkman 등(1986)의 평가, 대응, 결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대응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신감이 높을 때는 대응, 자아통제, 책임감을 더 많이

받아들이며, 자신감이 낮을 때와 비교하여 회피를 하지 않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반면에 받아들이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될 때 거리를 두거나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남, 1997재인용).

스트레스 취약성에 관한 여러 연구를 통합해 볼 때, 스트레스 자극과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반응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개인적, 환경적 중재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레스 취약성을 내적인 요인으로 보고 이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을 거쳐 자살사고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겠다.

### Ⅲ. 연구 목적 및 연구 가설

#### 1. 연구 목적

자살현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자살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와 자살 위기자들의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녀가 성인기 이전까지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서 스트레스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형성된 각각의 심리도식, 즉 초기 부적응 도식 유형이 자살생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현재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자살생각과 심리도식의 관계에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 2. 연구 가설

**연구문제 1. 지각된 가족 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및 심리도식의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자살생각과 상관이 높을 것인가?**

가설1. 지각된 가족 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및 심리도식의 하위요인 중 특정 요인이 자살생각과 상관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지각된 초기 가족 응집성-적응성과 현재 가족 응집성-적응성은 상관이 있을 것인가?**

가설2. 초기 지각한 가족응집성-적응성과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지각된 초기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것인가?

가설3. 지각한 초기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 4. 지각된 초기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의 영향을 받은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을 형성하는데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이 조절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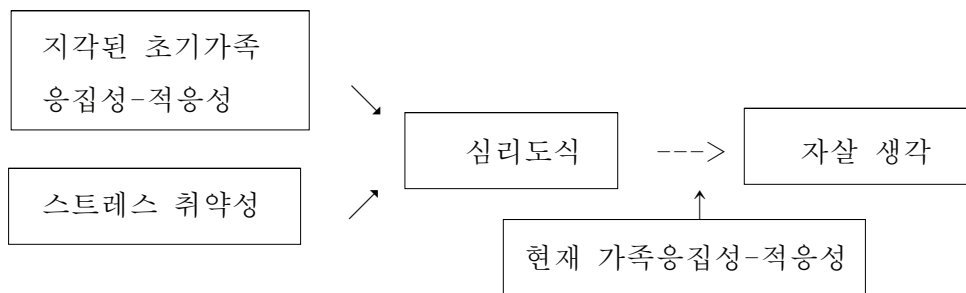
가설4. 지각된 초기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의 영향을 받은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을 형성하는데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이 조절할 것이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초기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에 영향을 주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두 변인에서 영향을 받은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과정에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이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론을 토대로 다음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로서, 심리도식 질문지, 스트레스 취약성 척도, 자살생각척도(SSI), 가족응집성-적응성척도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포함한 총 203문항이다.

서 검증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포함한 총 203문항이다.

### 1) 심리도식 질문지

Jeffrey E. Young이 만든 YSQ(Young Schema Questionnaire)척도를 YSQ 한국어판의 저작권자인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이동우<sup>1)</sup> 교수의 승인 하에 사용하였다. 90문항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 부적응 도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크게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손상된 한계, 타인-중심성, 과잉경계 및 억제 등의 5개의 범주로 나뉘며 하위 범주 총 18개로 나뉜다.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는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터키,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등에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Schmidt, Joiner, Young 및 Telch(1995)는 Young 심리도식 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각 초기 부적응 도식의 알파 상관계수는 .83(융합/미발달된 자기)에서 .96(결함/수치심)의 범위에 속했으며, 비 임상표본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0에서 .82의 범위에 속했다. 주요 하위 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내적 일치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심리도식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0였다.

### 2) 자살생각 척도

Beck, Kovacs, 및 Weissman(1979)이 만든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를 신민섭 등(1990)이 변형시켰다. SSI는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민섭 등(1990)이 가능한 한 원래의 문항에 충실하게 변형시킨 것이다. 이것을 최태산(1997)이 요인분석을 통해 14문항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태산이 요인분석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살생각 척도 14문항중 신뢰도가 떨어지는 5문항을 제한 9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1였다.

---

1) E-mail : dwlee@sanggyepaik.ac.kr

### 3)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는 Joyce Potner와 Richard Bell에 의해 1978년에 111항목으로 최초로 개발된 후 3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 및 표준화 되었다. 이 척도는 1985년에 20문항으로 표준화되었으며, FACESⅢ를 임상 및 연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FACESⅢ는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정도를 평가하고, 동시에 가족 체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가족 각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았으며,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로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두 영역 각각에서 10점~50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평가하는 문항이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5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응집성의 하위영역으로는 정서적 결속감, 도움과 의논, 가족과 경계, 여가 시간 및 친구의 공유이고, 가족적응성의 하위영역으로는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과 규칙이다.

집단분류FACESⅢ는 총 20문항 중 10개의 홀수 문항이 응집성을 나타내고, 10개의 짝수문항이 적응성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문항이 ‘우리 가족은 …이렇다’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각 문항에 대한 대답이 실제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나타낸다고보다 응답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의 융통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한 척도를 2번 사용하여 지각된 초기 가족과 현재가족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지각된 초기 가족환경을 측정할 경우에는 문장 머리에 ‘예전’을 붙여 ‘예전 우리가족은 …했었다’의 형태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가족 응집성-적응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에 나와있는 점수를 기준으로 응집성-적응성을 각각 저, 고두집단으로 나누어보았는데, 응집성에서는 과잉분리, 분리를 저집단으로, 연결, 매우 연결을 고집단으로 보았고, 적응성에서는 경직, 구조적을 저집단으로, 융통적, 매우 융통적을 고집단으로 분류하여 조절

효과를 비교하였다. 각 집단별 분류로는 가족응집성이 낮은 집단이 103명, 높은 집단이 108명, 가족적응성이 낮은 집단이 110명, 높은 집단이 101으로 나뉘어 졌다.

Olson(1983)은 2,412명을 대상으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요인과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가 .77, .6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응성에서 신뢰도가 높은 7문항만을 사용했을때,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의 Cronbach  $\alpha$ 계수가 .90, .84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9, .80으로 측정문항이 신뢰로운 척도임을 보여준다.

구분	집단분류			
가족응집성 수준	과잉분리 10~25점	분리 26~32점	연결 33~39점	매우 연결 40~50점
가족적응성 수준	경직 10~21점	구조적 22~27점	융통적 28~34점	매우 융통적 35~50점

#### 4) 스트레스 취약성 검사

Cranwell-Ward(1998)가 제안한 검사로서, 8개의 하위척도, 즉 ‘건강식’, ‘금연·금주’, ‘운동’, ‘정서적 안녕감’, ‘성생활의 충족도’, ‘이완과 오락’, ‘가정과 직장의 균형’ 및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6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건강식’은 평상시에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습관을 측정한다. ‘금연·금주’는 평소 술과 담배를 사용하는 습관을 측정한다. ‘운동’은 평상시에 운동 등 신체활동을 얼마나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성생활의 충족도’는 사랑을 주고받는 기회가 충분한지, 성생활이 충분한 만족을 주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정서적 안녕감’은 평소에 감정 표현방식이나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측정한다. ‘이완과 오락’은 평상시에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휴식과 취미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가정과 직장과의 균형’은 평소 직장(혹은

다른 일)에서의 일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이해와 수용’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의 획득 정도를 측정한다. 스트레스 취약성 검사의 각 하위척도의 만점은 18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함을, 즉 스트레스를 받기 쉬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가정과 직장의 균형’요인을 제외한 Cronbach' Alpha 계수는 .86이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았고, 요인들간의 관계를 보기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으로 인하여 형성된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이 어떻게 매개하는 지를 보기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 V. 연구 결과

### 1. 인구통계학변인에 따른 심리도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도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손상된 한계’도식( $p < .05$ )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가 2.54로 남자의 2.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에 따른 손상된 한계( $p < .05$ )도 서울지역이 2.54로 기타 지역의 2.32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경기 및 지방에 비해 서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적인 한계, 타인에 대한 책임감, 장기적인 목표 지향 등에서 결함을 지니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남들과 협동하지 못하고, 타인과 헌신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른 ‘타인중심성’( $p < .05$ )과 ‘과잉경계 및 억제’도식( $p < .05$ )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타인중심성은 고졸이하가 2.74로 대학원 이상의 2.34보다 높았고, 과잉경계 및 억제 역시 고졸이하가 2.88로 대학원 이상의 2.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이 대학원 졸업인 사람에 비해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 충동, 선택을 지나치게 억제하며, 윤리적인 행동이나 수행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내면화된 규칙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타인에게 통제권을 내어주어,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수입에 따른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p < .05$ )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월수입이 200만원이

하인 집단의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은 2.59로 401-500만원의 2.26보다 높았다. 이는 월수입이 200만원이하인 사람이 401- 500만원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며, 재난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자신이 그 재난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체성이 부족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어리석고, 무능하고, 재능이 없고, 지위가 낮고,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믿는다.

<표 1>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심리도식

		단절,거절	손상된 자율성, 수행	타인 중심성	손상된 한계	과잉경계, 억제
성 별	여자	2.30 (0.81)	2.34 (0.83)	2.57 (0.80)	2.54 (0.83)	2.66 (0.75)
	남자	2.31 (0.67)	2.11 (0.72)	2.52 (0.67)	2.31 (0.62)	2.77 (0.65)
	T(p)	-.080	1.900	.445	2.181*	-.989
주 거 지	서울	2.33 (0.81)	2.32 (0.83)	2.56 (0.76)	2.54 (0.81)	2.71 (0.73)
	기타	2.45 (0.69)	2.16 (0.75)	2.54 (0.77)	2.32 (0.68)	2.67 (0.71)
	T(p)	.737	1.385	.216	2.098*	.389
학 력	고졸이하	2.45 (0.82)	2.43 (0.84)	2.74(0.78) a	2.64 (0.80)	2.88(0.74) a
	대졸	2.30 (0.72)	2.25 (0.73)	2.52(0.70)ab	2.44 (0.73)	2.67(0.65)ab
	대학원이상	2.05 (0.75)	2.02 (0.89)	2.34(0.88) b	2.25 (0.84)	2.46(0.80) b
	F(p)	2.743	2.893	3.418*	2.998	3.979*
월 수 입	200만원이하	2.55 (0.73)	2.59(0.74) a	2.81 (0.59)	2.77 (0.69)	2.86 (0.60)
	201-300만	2.24 (0.68)	2.15(0.66)ab	2.55 (0.74)	2.41 (0.72)	2.63 (0.75)
	301-400만	2.24 (0.85)	2.11(0.76)ab	2.40 (0.73)	2.36 (0.85)	2.64 (0.79)
	401-500만	2.27 (0.65)	2.26(0.78) b	2.53 (0.68)	2.39 (0.61)	2.64 (0.67)
	501만원이상	2.21 (0.84)	2.21(0.86)ab	2.46 (0.93)	2.35 (0.88)	2.70 (0.77)
	F(p)	1.590	2.705*	1.844	2.402	.802

※ Duncan의 사후검정 : 같은 문자가 있는 열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 $\alpha=.05$ )

## 2.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자살생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각된 가족 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및 심리도식의 하위 요인과 자살생각의 관계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 심리도식의 하위 요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을 1단계로, 심리도식을 2단계로 차례로 입력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에서 지각된 초기가족환경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심리도식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순차적인 분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가족환경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2단계에서 심리도식을 포함해서 분석을 하여 심리도식에 영향력을 좀 더 자세히 규명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의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5.6%인데 반해, 심리도식이 추가되면서 14.5%가 증가한 20.1%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좀 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 1 단계에서 정서적 안녕감( $p < .05$ )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취약성에서 정서적 안녕감 요인이 취약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도식이 투입된 2단계 모형에서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절 및 거절 심리도식( $p < .01$ )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절 및 거절에 관한 심리도식이 많이 형성될수록( $B = .392$ )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가설 1에서 제기된 특정 요인은 ‘정서적 안녕감’ 과 ‘단절 및 거절감’ 으로 나타나 이 두가지 요인이 다른 요

인들에 비하여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가지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애착 및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초기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족 내에서 형성된 정서적, 관계적 측면 이외에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적 안녕감과 단절 및 거절감에 의해서 자살 생각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척도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단계1		단계 2	
	B	$\beta$	B	$\beta$
상수	1.937	***	.556	
가족응집성	-.119	-.160	-.063	-.085
가족적응성	.037	.050	.013	.018
건강식	-.032	-.025	-.082	-.065
금연-금주	-.145	-.137	-.057	-.054
운동	.016	.016	-.019	-.019
정서적안녕감	.248	.191 *	.205	.205 *
성생활충족도	-.039	-.035	-.061	-.055
이완과 오락	.007	.006	-.002	-.002
자기이해와 수용	-.120	-.082	.107	.074
단절 및 거절			.392	.491 **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012	-.015
타인 중심성			-.020	-.025
손상된 한계			.028	.035
과잉경계 및 억제			-.064	-.075
$R^2$	.056		.201	
$\Delta R^2$			.145***	
F	1.313		3.518***	

#### 4.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의 상관관계

초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현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4개의 모든 변인들 간에  $p < .001$ 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어린 시절 가족응집성-적응성이 인간이 성장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듯이, 어린 시절 지각한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성인이 되어 형성한 가정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어 가설 2가 지지되었다.

<표 3>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의 상관관계

	1	2	3	4
1.초기가정 응집성	-			
2. 적응성	.796***	-		
1.현재가정 응집성	.523***	.409***	-	
2. 적응성	.472***	.448***	.818***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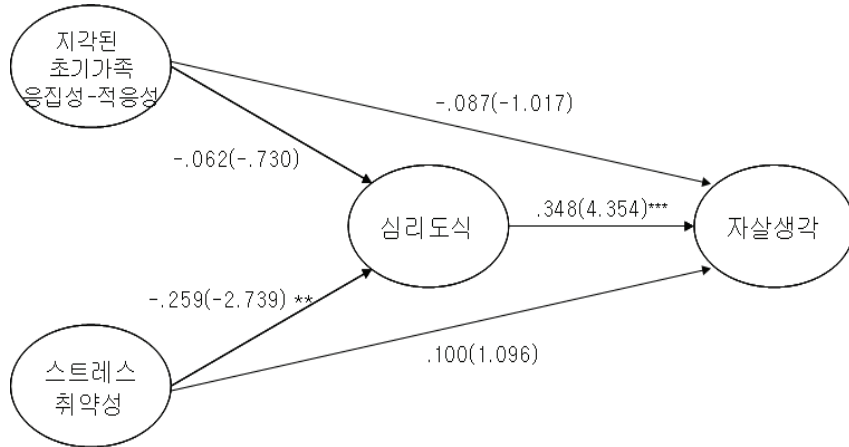
## 5.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심리도식, 자살생각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1>과 <표 4, 5>과 같이 나타났다.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5$ ), 스트레스 취약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p < .01$ ) 스트레스에 취약할수록( $\beta = -.256$ ) 심리도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도식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심리도식이 부정적일수록( $\beta = .335$ )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최종모형의 적합도와 차이가 거의 없으며, 추가된 가족환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최적의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형성하는 심리도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선택한 외적·내적 변인 중 외적 변인인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심리도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내적 변인인 스트레스 취약성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도식을 형성하는데 외부적 환경이나 자극보다 내적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느냐 보다는 얼마만큼의 내적 자원, 힘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형성된 사고체계, 즉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림 1>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



<표 4>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	B	$\beta$	T	p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 심리도식	-.057	-.062	-.730	.465
스트레스 취약성 ⇒ 심리도식	-.797	-.259	-2.739	.006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 자살생각	.225	.348	4.354	.000
스트레스 취약성 ⇒ 자살생각	-.058	-.087	-1.017	.309
심리도식 ⇒ 자살생각	.225	.100	1.096	.273

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표 8>에 제시된 대로 TLI 가 .903, CFI가 .913, RMSEA가 .070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 -구조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2$	df	p	GFI	NFI	TLI	CFI	RMR	·RMSEA (90% CI)
기본 모형	497 .038	246	.000	.834	.844	.903	.913	.036	.070 (.061 -.079)
대안 모형	495 .552	244	.000	.834	.844	.902	.913	.036	.070 (.061 -.079)

## 6. 지각된 초기 가족 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으로 형성된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현재 가족 응집성-적응성의 조절 효과

### 1) 현재 가족 응집성-적응성 - 가족 응집력

현재 가족 응집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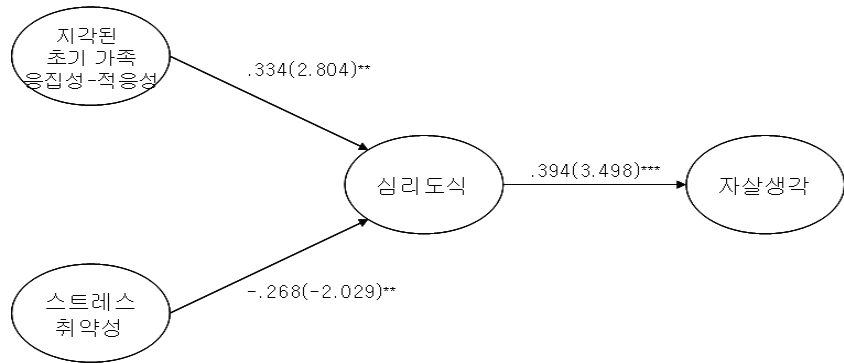
#### (1) 현재 가족 응집력이 유리, 분리인 집단

현재 가족 응집력이 낮은 집단의 지각된 초기 가족 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심리도식, 자살생각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2>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지각된 초기 가족 응집성-적응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1$ ), 초기 가족이 응집되고 적응적이었다는 지각을 할수록( $\beta = .334$ ) 심리도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스트레스 취약성 또한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p < .05$ ) 스트레스에 취약하지 않을수록( $\beta = -.268$ ) 심리도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도식도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p < .001$ ) 심리도식이 부정적일수록( $\beta = .394$ )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가족이 잘 응집되고 적응적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하지 않은데도 심리도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현재 가족의 응집성이 낮은 집단이라는 특성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과거 가족에 대한 기억이, 내적으로는 자신의 내부적인 자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왜곡되어 부정적인 심리도식을 형성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2> 가족응집력이 낮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표 6> 가족응집력이 낮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	B	$\beta$	T	p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Rightarrow$ 심리도식	.341	.334	2.804	.005
스트레스 취약성 $\Rightarrow$ 심리도식	-.897	-.268	-2.029	.042
심리도식 $\Rightarrow$ 자살생각	.345	.394	3.498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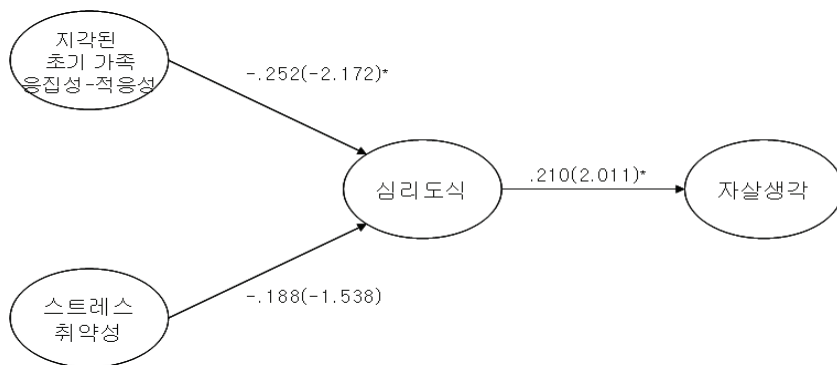
## (2) 현재 가족응집력이 연결, 속박인 집단

현재 가족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심리도식, 자살생각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3>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p < .05$ ), 초기 가족이 응집되지 않고 적응적이지 않았었다고 지각할수록( $\beta = -.252$ ) 부정적인 심리도식을 형성하였다. 스트레스 취약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도식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p < .05$ ). 부정적인

심리도식을 형성할수록( $\beta=.210$ )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가족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표 7> 가족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	B	$\beta$	T	p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Rightarrow$ 심리도식	-.270	-.252	-2.172	.030
스트레스 취약성 $\Rightarrow$ 심리도식	-.470	-.188	-1.538	.124
심리도식 $\Rightarrow$ 자살생각	.135	.210	2.011	.044

### (3) 조절효과 검증

현재 가족응집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가족응집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도는  $T=-1.766$ 으로 유의수준  $\alpha=.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가족의 응집력은 심리도식과 자살생각간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족응집력 조절효과

경로계수	B	$\beta$	T
가족응집력-저	.345	.394	-1.766
가족응집력-고	.135	.210	

## 2) 현재가족응집성-적응성 - 가족적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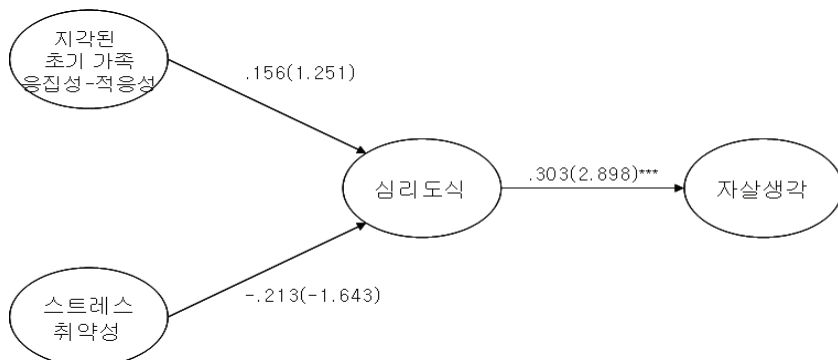
현재 가족 적응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현재 가족적응성이 경직, 구조화인 집단

현재 가족적응성이 낮은 집단의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심리도식, 자살생각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4>와 <표 9>과 같이 나타났다.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5$ ), 스트레스 취약성 역시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그러나 심리도식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p<.01$ ) 부정적인 심리도식을 형성할수록( $\beta=.303$ )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가족적응성이 낮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표 9> 낮은 가족적응성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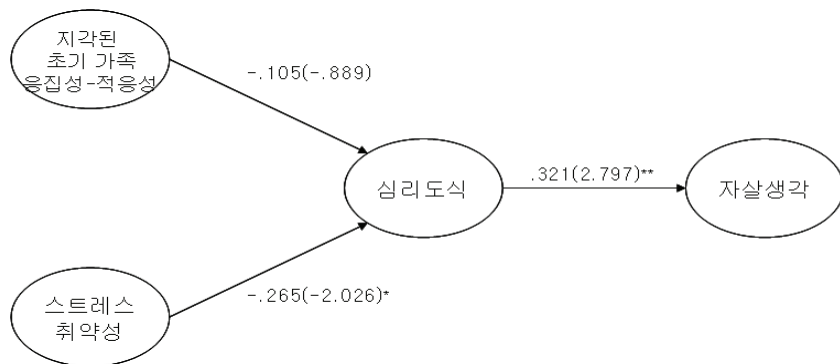
경로계수	B	$\beta$	T	p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Rightarrow$ 심리도식	.154	.156	1.251	.211
스트레스 취약성 $\Rightarrow$ 심리도식	-.681	-.213	-1.643	.100
심리도식 $\Rightarrow$ 자살생각	.278	.303	2.898	.004

## (2) 현재 가족적응성이 윤통, 혼돈인 집단

현재 가족적응성이 높은 집단의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심리도식, 자살생각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5>와 <표 10>와 같이 나타났다.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5$ ), 스트레스 취약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p < .05$ ) 스트레스에 취약할수록( $\beta = -.265$ ) 부정적인 심리도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도식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p < .01$ ) 심리도식이 부정적일수록( $\beta = .321$ )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가족적응성이 높은 집단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표 10> 높은 가족적응성의 심리도식과 자살생각 조절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	B	$\beta$	T	p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Rightarrow$ 심리도식	-.106	-.105	-.889	.374
스트레스 취약성 $\Rightarrow$ 심리도식	-.744	-.265	-2.026	.043
심리도식 $\Rightarrow$ 자살생각	.151	.321	2.797	.005

### (3) 조절효과 검증

현재 가족적응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적응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정도는  $T=-1.150$ 으로 유의수준  $\alpha=.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가족의 적응성은 심리도식과 자살생각간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가족적응성 조절효과

경로계수	B	$\beta$	T
가족적응성-저	.278	.303	-1.150
가족적응성-고	.151	.321	

##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심리도식 즉, 초기 부적응도식을 택하여 외적 요인으로는 어린 시절 지각된 가족 응집성-적응성과 내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취약성에 따라 형성된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조절변인으로서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이라는 지원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도식의 관계를 보았다. 심리도식의 ‘손상된 한계’ 변인에서 성별, 주거지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경기 및 지방보다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경기 및 지방에 비해 서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적인 한계, 타인에 대한 책임감, 장기적인 목표 지향 등에서 결함을 지니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남들과 협동하지 못하고, 타인과 현신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에서 ‘타인중심성’ 과 ‘과잉경계 및 억제’ 변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인 사람들이 대학원 졸업자인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사람이 대학원 졸업자인 사람에 비해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 충동, 선택을 지나치게 억제하며, 윤리적인 행동이나 수행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내면화된 규칙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타인에게 통제권을 내어주어,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월수입이 200만원이하인 사람이 401- 500만원인 사람에 비해 ‘손상된 자율

성 및 손상된 수행' 도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이 200만 원이하인 사람은 401-500만원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며, 재난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자신이 그 재난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체성이 부족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어리석고, 무능하고, 재능이 없고, 지위가 낮고,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믿는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다른 심리도식과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을 배제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해서는 자살생각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현재 부부간에 동거하는 사람들보다는 별거, 사별, 이혼 한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자살생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각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각각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설 1에서 제기된 특정 요인은 '정서적 안녕감' 과 '단절 및 거절감' 으로 나타나 이 두가지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성의 '정서적 안녕감' 요인은 가족,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지적 측면이고, '단절 및 거절' 도식 역시 관계에서 안정, 수용, 존중을 받지 못했을 때 즉, 분리, 거절, 외로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도식이다. 다시 말해, 이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른 취약한 요인보다도 관계적 측면에 취약할 때에 자살생각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절'에 대한 심리도식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준다는 조성호(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각각의 정서 증상들은 각 증상과 관련되는 독특하고 특수한 인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Beck(1976)의 내용-특수성 가설

(contents-specificity hypothesis)에 부합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경우 우울과 자살생각의 높은 상관에 대한 이민숙(2005)의 연구,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징을 알아보는 연구(이경진, 2003)에서 청소년 자살 위험성 예측 척도 기준(정철순 등, 2001)에 의하여 고위험 집단으로 밝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다른 심리적 특성들에 비해 우울이  $F=49.30$ 으로 가장 높아, 본 연구의 단절 및 관계에 관련된 요인들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고 우울증상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안녕감’ 과 ‘단절 및 거절감’ 이 두가지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애착 및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착이 형성되는 어린시절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어린 시절 지각된 초기 응집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부모의 통제성이나 엄격성이 자살충동경험집단과 자살충동 비경험집단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윤성림(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부모와의 친애도로, 부모가 자녀와 친밀하고 자녀를 이해하며, 자녀가 부모가 나를 인정하다고 느낄수록 자녀의 자살충동이 낮아진다는 임명원(1998)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어린시절 지각된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지만 애착 및 관계적 측면을 나타내는 ‘정서적 안녕감’ 요인과 ‘단절 및 거절감’ 요인은 가족 내에서 형성된 정서적, 관계적 측면 이외에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적 안녕감과 단절 및 거절감에 의해서 자살 생각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 위기자에 대해 주관적인 정서와 인지에 대한 치료 및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어린 시절 지각한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성인이 되어 형성한 가정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어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세대에 걸친 가족분화 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모든 하위체계에서 가족분화수준이 세대간 전수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남순현, 2001).

마지막으로,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가설 3의 자살생각에 대한 각 하위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취약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 취약성이 낮을수록 심리도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도식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심리도식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도식을 형성하는데 외부 환경(어린시절 가족 응집성-적응성)의 좋고 나쁨의 정도를 지각하는 것보다 환경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이 심리도식을 형성하는데 더욱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에 영향을 주어 그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이 조절을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이 사람의 인격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는 많이 있지만,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이 다음 세대의 가족응집성-적응성으로 전수된다는 연구는 많지 않아 연구 계획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가족 응집성-적응성 척도로 과거와 현재 가족 응집성-적응성을 각각 보아 상관은 높았지만, 이러한 지각된 초기 가족환경과 현재가족환경을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에 대해 성인 개인의 지각만으로 측정하였으나, 부부나 자녀를 통합적으로 보아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족환경을 볼 수 있는 연구에 바람직하리라 본다.

셋째, 자살위기가 아닌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일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심리도식에 따른 자살생각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살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살행위가 아닌 자살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Beck의 이론에 의하면 자살생각은 자살행위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지만, 자살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자살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살생각만으로 자살연구를 하는 것은 자살에 대한 연구가 갖는 한계점으로 보인다.

다섯째,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의외 심리도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외전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형성된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다.

여섯째, 현재 가족 응집성-적응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표본이 작고, 가족 적응성의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고 · 저집단으로 분리하여, Olson의 이론에 근거한 4집단 각각의 조절효과를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내린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Jeffrey E. Young의 심리도식을 우리나라 기혼 성인에게 적용하였다.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심리도식을 지각된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의 영향으로 보고 검증하

였기에 한국 기혼 성인들의 특성을 알고 그에 맞는 개입을 구성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한국 기혼 성인들이 갖는 심리도식은 그동안 선행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국내 성인들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심리도식을 사용한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우울과 관련한 도식으로 고립/단절, 몰락, 상실우려, 내성취약이 우울증상 전체 변량의 43.7%를, 불안증상과 관련된 도식으로 파국, 몰락, 실패/무능, 절대기준/완벽요인들이 44.1%를, 적대감 증상의 경우에는 파국, 충동/분노, 배려/희생 도식들이 32.7%를 설명하였다. 또한 편집성 성격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신, 파국, 정서지지 결여, 실패/무능, 절대기준/완벽에 대한 도식들이 전체 편집성 성격특성의 64.7%를, 경계선 성격 특성과 관련한 도식으로는 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등의 도식들이 전체 경계선 성격특성 변량의 57.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 2002).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기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더욱 확대하여 치료 장면에서 이러한 인지도식을 치료하는 접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인들의 자살율은 날로 늘어가는데 비해, 청소년과 노인에 비해 30-50대의 성인의 자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청소년 자살은 사회적으로 이미 이슈화되어있지만, 성인은 자살문제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자살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접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아닌, 가장 현실사회에 접해있는 성인들에게 각 심리도식에 적합한 예방, 즉 인지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셋째, 가족환경의 한 부분으로 선택한 응집성-적응성에 대한 지각이 세대간에 전수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성인이 가족 내에서 경험하고 있

는 어려움에 접근할 때, 어린시절 초기 가족에 대한 기억이나 미해결 과제를 다루는 방법의 접근도 유용할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도식이 형성되는 외적인 환경을 가족 응집성-적응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심리도식은 평생에 걸쳐 형성되지만 아동기, 청소년기에 주로 발달하므로 초기 가족의 환경의 전반적인 면으로 인해 심리도식이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고,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부적응적 도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자살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살생각을 증폭시키거나 완충하는 요인들에 대한 폭넓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승자(1985). 가족체계 상호작용 유형과 청소년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역(2005). 심리도식치료. 학지사
- 김성준(2002).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의 상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숙(200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우울성향과의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충선 역 (1995). 자살론: 사회학적 연구, 에밀 뒤르켐 지음. 서울: 청아출판사.
- 남순현(2001). 3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수경(1990). 가출경험소녀와 비가출경험소녀간의 가족관계 연구 - 순환모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121-124.
- 박광배, 신민섭, 오경자, 김중술 (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20-32.
- 박상철, 조용범 저(1998). 자살, 예방할 수 있다. 학지사
- 박현진(199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남(1997).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순천제일대학 경영과.

- 신민섭, 박광배(1990). 고등학교의 대학입시 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임상심리학회지.
- 신영규(1994).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귀여루(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호연심리상담센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 안창일 저(2002). 임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어유경(2005). 취약한 가족 환경이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설필(2002) 자살관련 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성립, 윤진(1993).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그 관련 변인. 한국심리학회지;임상
- 이경진(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집단과 저위험집단의 심리적 특징.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숙(2005). 노인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건역(2004).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이정균(1986). 정신의학. 서울 : 일조각.
- 이주은(1995). 우울과 자기지향이 자기지각, 사회적지지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4).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수(1994). 건강심리학. 서울. 성원사

- 임명원(1998). 심리적 가정환경과 청소년 자살충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용우(1984).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갑, 강성군(1996).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장희숙 (2002).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 50, 131-155.
- 조미숙 (1999).가정폭력의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조성호(2001a).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조성호(2001b). 초기 부적응 도식과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과의 관  
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39-54.
- 조성호(200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775-788.
- 최영희, 이재연(1990)역.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서울 : 형설 출판사
-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 아동학회지,  
14(2). 145-160.
- 한영미(1990).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수 ·이정균(1980). 응급실을 통해 본 자살기도자의 신경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19호, 204- 212.
- 200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2005). 통계청
- Aldwin, C. M & Revenson, T. A. Does coping hel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987), 337-348)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1992).89-101
- Beck, A.T ., & Brown, G. and Steer, R. A. " Prediction of Eventual Suicide in Psychiatric Inpatient s by Clinical Raying of Hopelessness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1989), 309- 310
- Bell, R. (1982). Parent-adolescent interaction in runaway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Paul : University of Minnesota.
- Billings, A. G., & Moos, R. H.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1984), 877-891.
- Black, D.W ., Winokur, G. & Nasrallah, A. " Suicide in Subtypes of Major Affective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1987), 878- 880.
- Bonner , R. L., & Rich, A. R.. Psychosocial vulnerability , life stres s, and suicide ideation in a jail population : A cross - validation study . *Suicide and Life- Threa tening Behavior*, 20(3)(1990), 213- 224.
- Burr, W. R, Day, R. D., & Dabh, K. S. *Family Scienc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1993)
- Carlson, G. A., & Cantwell, D. P . Suicide behavior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 s . *J ourna l of the Amer ican Academy of Child P sychia try*, 21(1982) , 361- 368.

- Clark, J. P. (1984). The family types of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Paul : University of Minnesota.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Edwards, J. R.,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oping with stress, In CL Cooper and R Payne (Eds), *Causes, coping and consequences of stress at work*, Chichester John Wiley & Sons, 1988.
- Elliott, G. R., & Eisdorfer C. *Stress and Human health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Research*, p.19. (Eds) (1982), New York Springer-Verlag.
- Friedman, A. S., Utada, A., & Morrissey, M. (1987). Families of adolescents drug abusers as 'Rigid' : Are these families either 'Disengaged' or 'Enmeshed' or both. *Family process*, 26. 131-148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2nd ed.). Scott : Foresman " Company
- Hamberg, P. A. . A Perspective on coping behavior. *Archives Gen. Psychiatry*, 17(1967), 277-284.
- Hotaling, G. T. and Sugarman, D. B.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Victimology*. 1, (1986) 101-124
- House, J. S.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California. Addison-wesly publishing company. (1981) p.31
- John, S. & Meryl, E. M. Divergent Effects of Goal Control on Coping

- with Work Stressors : The key Role of Self-Efficac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1997), 738-754
-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 Lieb, R., Isensee, B., Hofler, M., Pfister, H., & Wittchen, H. U.  
(2002). parental major depression and the risk of depression  
and other mental disorder in offspring.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9, 365-374
- Lynch, M. & Cicchetti, D.(1998).An ecological transactional analysis  
of children and contexts, Development  
Psychopathology,10,235-257.
- Miller, J. R. & Janosik, E. H. Assessment of family function. Family  
focused care, New York. McGraw-Hill co.,(1980) p.132-146
- Olson, D H, Commentary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1991, pp74-79
- Olson, D H, Russell, C S , " Sprenkle, D.(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22, 1983, pp 3-28, pp 69-83.
- Portner, J. (1982). Parent/ adolescent relationship, Interaction types  
and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Rainer, J . D.(1984). Genetic factors in depression an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 Rodick, J. D., Henggeler, S. W., & Hanson, C. L., (1986). An  
evaluat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Rosenbaum, A., and O'Leary, K.D. Children: The unintended victims of marital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1981) 692-699.
- Rudd, M. D.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1990), 16- 30.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 III. Empirical evaluation with families. *Family Process*, 18. 29-45.
- Sarason, I. G. Empirical findings and theoretical problems in the use of anxiety scales, *Psychol Bull.* 57(1960), 403-415
- Sarason, I. G. Text of anxiety, attention, and the general problem of anxiety In Spielberger C D, Sarason, I. G(eds), *Stress and Anxiety*. Vol 1, Washington DC. Hemisphere, (1975)
- Straus, M. A., Gelles, R. J., and Steinmetz, S. K.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Anchor Books/Doubleday, Garden City, NY.(1980)
- Ulbrich, P., and Huber, J. Observing parental violence: Distribution and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81) 623-631.
- Weissman, M. M.(1974). The epidemiology of suicide attemp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0, 737- 746.

#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schema, family cohesion–adaptibility and stress vulnerability

HeeYou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chema concept introduced by Jeffrey E. Young, affects suicidal ideation.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early family environment perceived by the subjects and their stress vulnerability may influence on their schema on life and in turn, these schema will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It was also hypothesized that the current family environment will play a role in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schema formed in early life.

Two hundred and seventy married adults, resid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Kyunggi province were recruited and asked to fill out a package of questionnaires. Two hundred and eleven subjects’ complete data were used for analysis. The scales used consist of the family cohesion–adaptibility scale, Young Schema Questionnaire, the Stress Vulnerability Scale and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The data were calculated for reliabilit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and AMOS analysis were also carried out to test the hypothe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between demographic factors, such as sex, educational level, income and schema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suicidal ideation.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the data indicated that the sense of emotional well-being factor in the stress vulnerability scale and the isolation and rejection factors in the schema were found to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Fourth,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ived early family cohesion-adaptability and the current family cohesion-adaptability.

Finally, I examined how one's perceived early family cohesion-adaptability and stress vulnerability affected one's schema by using AMOS.

The perceived early family cohesion-adaptability variable did not affect the schema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way, but stress vulnerability variable did. For example, the lower the stress vulnerability the higher the scores were on the schema scale. The schema also affected suicidal ideation. For example, the higher the scores on the schema scale, the higher the scores were on suicidal

ideation scale. The present family environment did not seem to play a regulatory role in suicidal ideation.

# 부 록

부록 1. 인구 통계학적 변인

부록 2. 심리도식의 하위 요인

부록 3. 스트레스 취약성 검사

부록 4. 가족 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

부록 5. 심리도식 질문지

부록 6. Beck의 SSI

<부록 1> 인구 통계학적 변인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64	30.3
	여자	147	69.7
연령	30-34세	36	17.1
	35-39세	42	19.9
	40-44세	33	15.6
	45-49세	48	22.7
	50-54세	38	18.0
	55-59세	14	6.6
주거지	서울	135	64.3
	기타	75	35.7
결혼상태	동거	190	94.1
	기타	12	5.9
부모	부모	182	87.1
	편부모	27	12.9
	고졸이하	69	33.3
학력	대졸	109	52.7
	대학원이상	29	14.0
종교	기독교	91	43.1
	천주교	36	17.1
	불교	28	13.3
	없음	56	26.5
월수입	200만원 이하	46	22.2
	201-300만원	58	28.0
	301-400만원	33	15.9
	401-500만원	21	10.1
	501만원이상	49	23.7

## <부록 2> 심리도식의 하위 요인

### 1. 단절 및 거절

(안전, 안정감, 돌봄, 공감, 감정 공유, 수용, 존중 등에 대한 욕구가 자신이 예상한 애로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분리되어 있고, 냉담하고, 거절하고, 억제적이고, 외롭고, 폭발적이고, 예측하기 힘들고, 확대하는 전형적인 가족 기원을 지니고 있다.)

#### 1) 유기/ 불안정

자신에게 지지와 연결을 제공하는 대상이 불안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지각한다.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게 정서적인 지지, 연결, 힘, 실질적인 보호 등을 꾸준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타인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며(예: 분노 폭발), 신뢰할 수 없고, 변덕스럽다고 지각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서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불신/ 학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고, 확대하고, 모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위해는 대개 남들이 고의적으로 가한 것이거나 혹은 변명의 여지없이 지나치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각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자신은 늘 남들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어이없는 꼴을 당한다는 지각도 포함될 수 있다.

#### 3) 정서적 결핍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싶은 정상적인 소망이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결핍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 A. 양육 결핍 : 관심, 애정, 따뜻함, 동반의 부재
- B. 공감 결핍 : 이해, 경청, 자기-공개, 상호 간의 감정 공유의 부재
- C. 보호 결핍 : 타인에게서 얻는 힘, 지도, 안내의 부재

#### 4) 결함/ 수치심

자신을 결함이 있고, 나쁘고, 남들이 원치 않고, 열등하고, 중요한 측면에서 취약한 존재라고 느끼거나,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면 중요한 타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다. 비판, 거절, 비난 등에 과민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고, 남들과 같이 있을 때 불안전감을 느끼며, 자신의 결함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런 결함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예: 이기심, 분노 충동, 용납할 수 없는 성욕),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다(예: 매력없는 외모, 사회적 서투름).

#### 5) 사회적 고립/ 소외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남들과 다르며,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고 느낀다.

## 2.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타인으로부터 분리, 생존, 독립적인 기능,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잘못 지각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 및 환경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다. 밀착되어 있고,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과잉보호하고, 집 밖에서 유능하게 수행하는 것을 강화해주지 않는 전형적인 가족 지원

을 지니고 있다.)

## 6) 의존/ 무능감

다른 사람들의 상당한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일상적인 책무(예: 자기 자신 돌보기, 일상적인 문제 해결하기, 잘 판단하기,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기, 잘 결정하기)를 유능하게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종종 무력감으로 드러난다.

## 7) 위협/ 질병에 대한 취약성

끔찍한 재난이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며, 자신은 그 재난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과장된 공포를 지니고 있다. 공포의 초점은 다음 중에서 한가지 혹은 그 이상에 맞춰져 있다: A. 의학적 재난(예: 심장박탈, AIDS), B. 정서적 재난(예: 미쳐버림), C.외부적 재난(예: 엘리베이터 추락, 범죄로 인한 피해, 비행기 충돌, 지진)

## 8) 융합/ 미발달된 자기

충분한 개별화나 정상적인 사회적 발달을 이루지 못한 채,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중요한 타인(대개 부모)과 지나치게 밀접하거나 정서적으로 너무 연루되어 있다. 융합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지지가 없으면 제대로 살거나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상대방 때문에 움썹달썹할 수 없는 느낌이나 타인과 구분되지 않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개별적인 정체성이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종종 공허감, 가라앉는 듯한 기분, 방향을 상실한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한다.

## 9) 실패

자신이 이미 실패했거나 혹은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믿

으며, 자신이 동료들에 비해 성취의 영역(예: 학업, 직업, 운동 등)에서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믿는다.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어리석고, 무능하고, 재능이 없고, 지위가 낮고,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믿는다.

### 3. 손상된 한계

(내적인 한계, 타인에 대한 책임감, 장기적인 목표 지향 등에서 결함을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남들과 협동하지 못하고, 타인과 헌신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책임감, 상호협력, 목표설정 등과 관련해서 적절한 직면이나 훈육, 한계를 제공하기보다는 허용하고, 방임하고 지도하지 않고, 우월감을 심어주는 전형적인 가족기원을 지니고 있다. 어떤 경우, 아동은 정상적인 수준의 불편감을 참아내는 훈련도 받지 않았거나 부모로부터 적절한 감동이나 지도,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 10) 특권의식/ 과대성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자신은 보통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용되는 상호성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현실적인 여건이 어떠한지, 남들은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에게 얼마나 폐가 되는지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거나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들에게 관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힘이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월성(예: 가장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때때로 지나치게 경쟁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타인의 욕구나 감정

을 배려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을 행사하고,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며, 자신의 욕구에 맞도록 타인의 행동을 통제한다.

#### 11) 부족한 자기 통제/ 자기 훈련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적절하게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및 좌절을 견뎌내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과도하게 표현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불편감을 회피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고통, 갈등, 직면, 책임감, 노력 등을 회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 헌신,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다.

### 4. 타인-중심성

#### 12) 복종

차별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통제권을 내어주고 지나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인의 분노, 보복, 유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굴복한다. 주로 두 종류의 복종 유형이 있다.

A. 욕구의 복종 : 자신의 선호, 결정, 소망을 억제하는 것

B. 정서의 복종 : 정서, 특히 분노감을 억제하는 것

대체로 자기 자신의 소망, 의견, 감정이 남들에게는 중요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지각한다. 원치않는 올라미에 걸린 듯한 느낌을 자주 받으면서도 남들에게 지나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분노감을 쌓아두는 결과를 초래하며,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예: 수동-공격적 행동, 통제되지 않은 분노 폭발, 신체화 증상, 감정의 위축, 지나친 행동 표출, 물질 남용)

#### 13) 자기희생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은 희생한 채,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자발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남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기적이라고 느껴질 때 생기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타인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이다. 종종 타인의 고통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이게 된다. 때로 자신의 욕구는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자신이 돌봐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상호의존 개념과 유사한 면이 있다.)

#### 14) 승인-추구/ 인정-추구

참되고 안정된 자기감의 발달은 희생한 채, 타인으로부터 승인, 인정, 관심을 받는 것이나 그들에게 맞추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들의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운 선호보다는 주로 타인의 반응에 의해 좌우된다. 때로 (힘이나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인정, 흥미, 관심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지위, 외모, 사회적 수용, 경제력, 성취 등을 과도하게 중요시 한다. 이로 인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진실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거절당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해 진다.

### 5. 과잉경계 및 억제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 충동, 선택을 지나치게 억제하며, 윤리적인 행동이나 수행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내면화된 규칙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로 인해 종종 행복감, 자기-표현, 이완된 휴식, 친밀한 관계, 신체적 건강 등을 희생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엄하고, 요구사항이 많고, 때로는 처벌적인 가족 기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가족에서는 즐거움, 기쁨, 휴식보다는 수행, 의무, 완벽주

의, 규칙 준수, 감정 숨기기, 실수하지 않기 등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대개의 경우, 만일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주의와 걱정이 저변에 깔려있다.)

### 15) 부정성/ 비관주의

삶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측면은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는 반면, 삶의 부정적인 측면(예: 고통, 죽음, 손해, 실망, 갈등, 죄책감, 원망, 미해결 과제, 잠재적인 실수, 배신, 잘못 될 수 있는 일 등)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대개 (직업, 재정, 대인관계의 다양한 영역에서)매사가 결국에는 심각하게 잘못될 것임,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망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으로 과장된 기대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실수를 하면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손해를 입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지나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과장하는 경향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걱정과 불평이 많고, 경계하며, 우유부단한 특징을 보인다.

### 16) 정서적 억제

타인에게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충동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자연스러운 행동, 느낌, 의사소통을 지나치게 억제한다. 가장 흔히 억제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a)분노와 공격성의 억제, (b) 긍정적인 충동(예: 기쁨, 애정, 성적 흥분, 유희)의 억제, (c)취약성을 표현하는 것이나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함, (d)정서를 소홀히 하는 대신에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함.

### 17) 엄격한 기준/ 과잉비판

행동과 수행에 대한 매우 높은 내적인 기준을 지니고 있음, 비판당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전형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거나 여유를 갖기 힘들다고 느끼게 되며, 자신이나 타인을 지나치게 혹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즐거움, 휴식, 건강, 자존감, 성취감,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보인다. 엄격한 기준은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 완벽주의, 세부사항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자신의 수행을 평균수준에 비해 평가 절하하는 양상, (b) 삶의 여러 영역에서의 엄격한 규칙과 의무감, 비현실적으로 높은 도덕적 · 윤리적 · 문화적 · 종교적 규칙, (c) 시간과 효율성에 대한 집착, 더 많이 성취하려는 욕구.

## 18) 처벌

실수를 하면 누구나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기대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관용을 베풀지 못하거나, 처벌하거나,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경향으로 드러난다. 정상을 참작하지 않으려 하며,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개 자신이나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한다.

---

Note. Copyright 2002 by Jeffrey young. Unauthorized reproduction without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is prohibited. For more information, write to the Schema Therapy Institute, 36 West 44th street, Suite 1007, New York, NY10036.

## 설문지

<기혼 성인의 초기 가족환경과 그에 따른 심리도식>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한국 결혼한 성인의 초기 가족환경과 그에 따른 심리도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내용은 특정개인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결혼한 성인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의 응답내용은 확실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 최대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한국인의 가정환경과 기혼 성인의 스트레스 관리, 보호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인지행동 연구실

지도교수 채규만  
석사과정 연구원 김희연

### 부록 3. 스트레스 취약성 검사

1. 다음은 귀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을 잘 읽어보신 후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언제나 그렇다

1	적절한 음식을 적당량 먹는다.	1	2	3
2	점심식사 때 술을 마시지 않는다.	1	2	3
3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1	2	3
4	친구나 친척과 정기적 계모임이나 동창 모임을 갖는다.	1	2	3
5	나의 성생활에 만족한다.	1	2	3
6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취미 생활이나 규칙적으로 즐기는 흥밋거리가 있다.	1	2	3
7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거나 취미생활을 한다.	1	2	3
8	규칙적으로 기도생활을 하거나 명상을 한다.	1	2	3
9	하루에 커피, 차, 또는 콜라를 5잔 이상마시지 않는다.	1	2	3
10	음료수를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1	2	3
11	일상생활에서 적당한 신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을 한다.	1	2	3
12	규칙적으로 애정을 주고받는다.	1	2	3
13	규칙적으로 성적 만족감을 갖는다.	1	2	3
14	매일 휴식시간을 갖는다.	1	2	3
15	할 수 있는 일(현실적인 일)만 하며 과도하게 일하지 않는다.	1	2	3
16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한다.	1	2	3
17	나의 키에 알맞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1	2	3
18	혼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1	2	3
19	엘리베이터나 승강기를 이용하기보다는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	1	2	3
20	부정적 감정을 쌓아두기보다는 잘 표현한다.	1	2	3
21	성적으로 무력하거나 냉담하지 않다.	1	2	3

22	적어도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7~8시간 잠을 잔다.	1	2	3
23	결코 일(사업)이 나의 생활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다.	1	2	3
24	나 자신을 믿는다.	1	2	3
25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는다.	1	2	3
26	퇴근 후에 집에서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	1	2	3
27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1	2	3
28	매우 절친한 친구가 있어 그들과 은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1	2	3
29	사랑이 충만한 성관계를 갖는다.	1	2	3
30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재미있는 일을 한다.	1	2	3
31	사회생활에서 나의 사업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한다.	1	2	3
32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1	2	3
33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군것질은 하지 않는다.	1	2	3
34	적당하게 술을 마시거나(일주일에 2회 미만), 전혀 마시지 않는다.	1	2	3
35	매주 한가지 이상의 운동을 한다.	1	2	3
36	직장에서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동료가 있다.	1	2	3
37	안정된 성관계를 유지하길 좋아한다.	1	2	3
38	나 스스로 즐거운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	1	2	3
39	매일 휴식시간을 갖는다.	1	2	3
40	어떤 일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 소속감을 갖는다.	1	2	3
41	규칙적으로 생수나 광천(미네랄)수를 마신다.	1	2	3
42	하루 5개피 이하의 담배를 피우거나 아예 피우지 않는다.	1	2	3
43	매일 산책을 하거나 길을 걷는다.	1	2	3
44	친구로부터 도움을 구하거나 필요하면 전문적인 충고를 받는다.	1	2	3
45	거의 성적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6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1	2	3
47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나에게서 똑같이 중요하다.	1	2	3
48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다.	1	2	3

## 부록 4.가족응집성및가족적응성 척도

2. 다음 문항은 귀하가 생각하는 ‘어린시절(18세(고등학생) 이전) 가족 생활’에서 느낀 점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시절 귀하의 가족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	예전 우리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서로 도움을 청했었다.	1	2	3	4	5
2	예전 우리가족은 문제해결을 할 때 우리(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었다.	1	2	3	4	5
3	예전 우리가족은 서로의 친구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주었었다.	1	2	3	4	5
4	예전 우리가족은 우리(자녀)들이 우리(자신)의 교육문제에 대해 의사표현을 했었다.	1	2	3	4	5
5	예전 우리가족은 함께 뭉쳐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했었다.	1	2	3	4	5
6	예전 우리집은 일의 성질에 따라 지도자가 바뀌었었다.	1	2	3	4	5
7	예전 우리가족은 다른 사람들과보다는 우리가족끼리 더 친했었다.	1	2	3	4	5
8	예전 우리가족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융통성이 있었다.	1	2	3	4	5
9	예전 우리가족은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했었다.	1	2	3	4	5
10	예전 벌을 받을 때 우리 부모와 나(자녀)와 함께 그 벌에 관해 의논했었다.	1	2	3	4	5
11	예전 우리가족은 서로서로 매우 친했었다.	1	2	3	4	5
12	예전 우리가족은 우리(자녀)에게도 어떤 일을 결정할 권리를 주었었다.	1	2	3	4	5
13	예전 우리가족은 함께 해야 할 활동이 있을 때 가족 모두가 참가했었다.	1	2	3	4	5
14	예전 우리가족의 규칙은 사정에 따라 바꿀 수 있었다.	1	2	3	4	5
15	예전 우리가족은 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1	2	3	4	5
16	예전 우리가족은 가사 일을 나누어 했었다.	1	2	3	4	5
17	예전 우리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서로 의논했었다.	1	2	3	4	5
18	예전 우리가족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꼭 정해져 있지 않았다.	1	2	3	4	5
19	가족의 단결은 중요하다.	1	2	3	4	5
20	예전 우리집안의 사소한 일(쓰레기 버리기, 화초에 물주기 등)을 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1	2	3	4	5

## 부록 5. 심리도식 질문지

3. 다음은 사람들이 자신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최근 2년 동안**의 당신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판단하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옳은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바에 따라서** 대답하십시오. **두가지 점수 사이에서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보다 높은 점수를 선택하십시오.**(예를 들어 3점과 4점 중 어느 것인지 결정이 어려울 때는 4점을 선택하십시오.)

평가점수

- |                             |                  |
|-----------------------------|------------------|
| 1 = 완전히 나와 다르다              | 4 = 나와 상당히 일치한다  |
| 2 = 대부분 나와 다르다              | 5 = 나와 대부분 일치한다  |
| 3 = 나와 일치하는 면이 다른 면보다 조금 많다 | 6 = 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

1	내게는 나를 보살펴 주거나, 나와 마음을 나누거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1	2	3	4	5	6
2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 그들에게 매달리게 된다	1	2	3	4	5	6
3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4	나는 부적격자다	1	2	3	4	5	6
5	나의 결정을 알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1	2	3	4	5	6
6	내가 직장(학교)에서 남들만큼 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1	2	3	4	5	6
7	내게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헤쳐 나갈 능력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
8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1	2	3	4	5	6
9	나는 내 나이에 걸맞은 수준으로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1	2	3	4	5	6
10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11	대개의 경우 결국은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게 된다	1	2	3	4	5	6

12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예를 들면, 애정, 관심을 보이는 것 등)	1	2	3	4	5	6
13	내가 하는 일 대부분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2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	3	4	5	6
14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매우 힘들다	1	2	3	4	5	6
15	나는 자제력을 발휘해서 일상적이거나 지루한 일을 끝마칠 수가 없다	1	2	3	4	5	6
16	내게 돈이 많고, 중요한 사람들을 알고 지낸다면 나 자신이 가치있게 느껴질 것이다	1	2	3	4	5	6
17	일이 잘 되어가는 듯이 보여도 나는 단지 일시적이라 느낀다	1	2	3	4	5	6
18	내가 만약 실수를 한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	1	2	3	4	5	6
19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감싸주고,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1	2	3	4	5	6
20	나는 주변 사람들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 내게는 그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6
21	남들과 함께 있을 때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 내가 방심하면 그들이 나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1	2	3	4	5	6
22	나는 근본적으로 남들과는 다르다	1	2	3	4	5	6
23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도 내 곁에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24	나는 무언가를 성취해 낼 능력이 없다	1	2	3	4	5	6
25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남들에게 의존해서 처리한다	1	2	3	4	5	6
26	재난(자연재해, 범죄, 재정곤란, 질병)이 언제라도 일어 날 수 있을 것이란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27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삶과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 하고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있었다)	1	2	3	4	5	6
28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게 보복을 하거나 나를 거부할 것이다	1	2	3	4	5	6
29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 주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다	1	2	3	4	5	6
30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다	1	2	3	4	5	6

31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이 정도면 됐다”는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	1	2	3	4	5	6
32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제한의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1	2	3	4	5	6
33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경우에 나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	1	2	3	4	5	6
34	내게 있어서 업적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 줄 때 가장 가치 있다	1	2	3	4	5	6
35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따라올까 걱정된다	1	2	3	4	5	6
36	내가 실수를 한다면 용서란 없다	1	2	3	4	5	6
37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던 적이 없다	1	2	3	4	5	6
38	내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1	2	3	4	5	6
39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1	2	3	4	5	6
40	나는 어디에도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외톨이다	1	2	3	4	5	6
41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다	1	2	3	4	5	6
42	직장의 업무나 그 외에 뭔가 성과를 내야하는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유능하다	1	2	3	4	5	6
43	나는 상식이 부족하다	1	2	3	4	5	6
44	나는 공격 당할까봐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6
45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신상에 관한 사소한 일조차도 숨김없이 지낸다(지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신감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6
46	대인관계에서 나는 항상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해 준다	1	2	3	4	5	6
47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1	2	3	4	5	6
48	다정하고 자연스럽게 되기가 힘들다	1	2	3	4	5	6
49	나는 나의 모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1	2	3	4	5	6
50	나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싫다	1	2	3	4	5	6
51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기가 매우 힘들다	1	2	3	4	5	6

52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내가 덜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6
53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언제나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6
54	내가 만약 일을 해내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1	2	3	4	5	6
55	진정으로 나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나를 이해해주거나, 내 진정한 욕구와 감정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1	2	3	4	5	6
56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려 한다고 느끼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1	2	3	4	5	6
57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동기가 매우 의심스럽다	1	2	3	4	5	6
5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	1	2	3	4	5	6
59	나는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다	1	2	3	4	5	6
60	직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5	6
61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	1	2	3	4	5	6
62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가난해질 것을 걱정한다	1	2	3	4	5	6
63	나는 마치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들곤한다(했다)-나만의 인생이란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
64	나는 항상 남들이 나 대신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1	2	3	4	5	6
65	나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귀 기울여 왔다	1	2	3	4	5	6
66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억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감정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67	나는 무언가를 이루고 완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음을 느낀다	1	2	3	4	5	6
6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통상적인 규칙이나 관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6
69	내게 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즐기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수 없다	1	2	3	4	5	6
70	내가 회의에서 연설을 하거나 모임에서 소개될 경우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한다	1	2	3	4	5	6
71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될까 봐 걱정이된다	1	2	3	4	5	6

72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한다	1	2	3	4	5	6
73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내게 좋은 충고를 해주거나 방향을 제시해줄 믿음직한 사람이 없었다	1	2	3	4	5	6
74	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떠나 버릴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버린다	1	2	3	4	5	6
75	나는 보통 상대방이 무슨 다른 속셈을 갖고있는건 아닌지 경계한다	1	2	3	4	5	6
76	나는 어떤 모임에서도 겉도는 느낌이다	1	2	3	4	5	6
77	나는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한다	1	2	3	4	5	6
78	직장(모임)에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1	2	3	4	5	6
79	나는 매일 부딪히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자신이 없다	1	2	3	4	5	6
80	나는 의사가 심각한 질병을 진단한 적이 없는데도 중병에 걸릴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6
81	나는 종종 아버지(어머니)나 배우자로부터 독립된 나만의 정체성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들었다)	1	2	3	4	5	6
82	남들이 내 권리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1	2	3	4	5	6
83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84	사람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경직되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85	나는 내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쉽게 용서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86	나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치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87	나는 내 결심을 충실히 지킬 수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	1	2	3	4	5	6
88	많은 칭찬과 찬사를 받으면 내가 매우 가치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6
89	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재난이 닥치게 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90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다	1	2	3	4	5	6

## 부록 4.가족응집성및가족적응성 척도

4. 다음 문항은 귀하의 **현재 가족 환경**에 대해 느끼는 점들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가족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	우리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서로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2	우리가족은 문제해결을 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1	2	3	4	5
3	우리가족은 서로의 친구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준다.	1	2	3	4	5
4	우리가족은 자녀들이 자신의 교육문제에 대해 의사표현을 한다.	1	2	3	4	5
5	우리가족은 함께 뭉쳐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6	우리집은 일의 성질에 따라 지도자가 바뀐다.	1	2	3	4	5
7	우리가족은 다른 사람들과보다는 우리가족끼리 더 친하다.	1	2	3	4	5
8	우리가족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융통성이 있다.	1	2	3	4	5
9	우리가족은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10	별을 받을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별에 관해 의논한다 .	1	2	3	4	5
11	우리가족은 서로서로 매우 친하다.	1	2	3	4	5
12	우리가족은 자녀에게도 어떤 일을 결정할 권리를 준다.	1	2	3	4	5
13	우리가족은 함께 해야 할 활동이 있을 때 가족 모두가 참가한다.	1	2	3	4	5
14	우리가족의 규칙은 사정에 따라 바꿀 수 있다.	1	2	3	4	5
15	우리가족은 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서로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6	우리가족은 가사 일을 나누어 한다.	1	2	3	4	5
17	우리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서로 의논한다 .	1	2	3	4	5
18	우리가족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꼭 정해져 있지 않다.	1	2	3	4	5
19	가족의 단결은 중요하다.	1	2	3	4	5
20	우리집안의 사소한 일(쓰레기 버리기, 화초에 물주기 등)을 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1	2	3	4	5

## 부록 6. Beck의 SSI

5. 다음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려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점에 ○표 해주십시오.

1. 전혀 없다    2. 거의 없다    3. 약간 있다    4. 상당히 있다    5. 많이 있다

1	살고 싶은 소망은	1	2	3	4	5
2	죽고 싶은 소망은	1	2	3	4	5
3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려는 욕구가 있다.	1	2	3	4	5
4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5	실제로 자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자살하려는 글(유서)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8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죽음을 예상하고 한 일(예, 보험, 유언)등이 있다.	1	2	3	4	5
10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11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한 적이 있다.	1	2	3	4	5
12	정말 자살시도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1	2	3	4	5
13	실제로 자살시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1	2	3	4	5
14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나 소망이 오랫동안 지속된 적이 있다.	1	2	3	4	5

6.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해당되시는 곳에 ○표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_\_\_\_\_ 여자\_\_\_\_\_
  - 3) 귀하 현재 주거지는 어디이십니까? (시, 구까지만 적어주세요)  
\_\_\_\_\_시 \_\_\_\_\_구
  - 4)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동거\_\_\_\_\_ 별거\_\_\_\_\_ 사별\_\_\_\_\_ 이혼\_\_\_\_\_
  - 5) 귀하가 어린시절(18세 이전)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아버지와 막내인 자신을 포함하여 2남 1녀인 경우 : 부0 모X 형제2 자매1 순위막내)  
부\_\_\_\_ 모\_\_\_\_ 형제\_\_\_\_ 자매\_\_\_\_ 순위\_\_\_\_ 기타\_\_\_\_\_
  - 6) 현재 귀하와 함께사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있는 경우; 남편:본인, 아내:○, 아들:X, 딸:1, 기타:어머니)  
남편\_\_\_\_ 아내\_\_\_\_ 아들\_\_\_\_ 딸\_\_\_\_ 기타\_\_\_\_\_
  - 7)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국졸 이하      2) 국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      6) 대학원졸      8) 기타\_\_\_\_\_
  - 8) 귀하께서는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없음      5)기타\_\_\_\_\_
- \*질문 8-1는 종교가 있으신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8-1) 귀하의 신앙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다.      2) 좋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지 않은 편이다.      5) 매우 좋지 않다.
- 9) 귀하가 일하시는 직업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① 무직      ② 전업 주부      ③ 생산직, 단순 노동직  
④ 판매, 서비스(상업, 점원, 외판원, 행사, 노동자, 운수업, 서비스직 등)  
⑤ 일반사무직(회사원, 일반 공무원, 은행원, 사회단체직원, 경찰관 등)  
⑥ 전문기술직(엔지니어, 건축가, 교사 등)  
⑦ 관리직(기업체 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자영업체 경영자 등)  
⑧ 전문직(의사, 약사, 법조인, 교수, 연구가, 작가, 예술가, 언론인, 방송인, 종교인 등)  
⑨ 기타 : \_\_\_\_\_
  - 10) 귀하 가족의 월 수입은?  
1) 100만원 이하      2) 100-200만원      3) 200-300만원  
4) 300-400만원      5) 400-500만원      6) 500만원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감사의 글

큰 불안이나 어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논문을 마쳤습니다.

늘 격려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믿어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시는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친구 같은 모습으로 위로해주시고 등 뒤에서 기도해주시는 어머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멋진 오빠.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가족을 주심입니다.

심리학자로서의 예리함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아버지 같은 푸근함을 가지신 채규만 교수님. 선생님 제자인 것이 참 좋습니다. 늘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시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셨던 장재윤 교수님, 넉넉한 웃음으로 논문 과정을 도와주신 흥대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리도식 척도를 사용하도록 승인해주신 상계백병원 이동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논문을 쓰며 고생했던 현미언니, 언니가 있어서 이 과정을 즐겁게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18기 동기들, 인지랩 선배, 후배님들, 은선·정훈 부부, 나영이, 클리닉 식구들 모두 제게 힘이 되어주셨어요. 고마워요.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목사님을 비롯해 청년회 친구들, 예찬양 가족들, 80동기, 기도해주신 분들 그리고 너무나 귀한 다니엘 기도방 식구들 덕분에 마음에 췌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의 전부이신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비전으로 열심히 일하고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